

南北高位當局者會談

第5次 豫備會談 會議錄

1989. 12.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 目 次 〉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附錄：代表團 記者會見..... 85



#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89.12.20(水) 10:00~12:15

나. 場 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측	北 측
<p style="text-align: center;">〈首席代表〉</p> <p>宋 漢 虎 (國土統一院 次官)</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金 三 勳 (外務部 情報文化局長)</p> <p>朴 鍾 權 (國防部 合同參謀本部 局長)</p> <p>廉 弘 喆 (大統領 秘書室 政務秘書官)</p> <p>金 保 鉉 (國務總理室 行政調整室 審議官)</p>	<p style="text-align: center;">〈團 長〉</p> <p>백 남 준 (정무원 참사)</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유 성 철 (정무원 실장)</p> <p>최 우 진 (외교부 국장)</p> <p>최 성 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p> <p>김 영 철 (인민무력부 부국장)</p>



---

---

會 議 錄

---

---





## 2 . 會議錄

### 〈雙方 代表團 入場 및 人事交換〉

南 (宋漢虎) :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北 (백남준) : 피차에, ……서울에서 떠났지요?

南 (宋漢虎) : 예, 서울에서 떠났지요. 그쪽은 뭐 어제…….

北 (백남준) : 어저께 와서 開城에서 하루밤 자고…….

南 (宋漢虎) : 그래서 이제 뭐 今年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年末이 되면은 보통 지난 1년동안의 일들을 다 決算하게 마련인데, 우리 豫備會談의 경우를 보면은 크게 내세울만한 成果가 좀 없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北 (백남준) : 나 期待가 큰데요, 오늘은 이거 뭐 實務節次問題 가지고 1년내내 이렇게 끌어서 되겠느냐, 그런데 내일 모레 冬至지요?

南 (宋漢虎) : 그렇지요.

北 (백남준) : 예, 冬至는 高麗때부터 작은 설이라고 합니다. 작은설, 해가 제일 짧은 날이고 또 해가 그날부터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작은 설이다. 이를 후면 작은 설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會談에 대해서 상당한 期待를 가지고 왔습니다.

南 (宋漢虎) :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예요. 특히 사람들은 흔히 왜 그 마감시간이 가까워지면 가장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아무래도 會談으로서, 今年로서는 마지막 會談이 되

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오늘 會談에서 박차를 가해서 된  
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北(백남준) : 오늘 實務節次問題 妥結 다 합니다. 마무리하고…….

南(宋漢虎) : 그래요.

北(백남준) : 그런데 뭐 宋先生 한가지 約束을 안 지키게 있어요.

南(宋漢虎) : 무엇인데요?

北(백남준) : 今年중에는 새로 짓는 집이 다 完工되면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 約束은 오늘 今年의 마지막 會談이니까 그  
約束은 또 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實務節次問題 今年중에 마무리 짓자  
그랬던 約束은 오늘 지킵시다.

南(宋漢虎) : 지킵시다. 어제 竣工式을 했는데 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엔 새해부터 아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北(백남준) : 뭐 내년엔야 우리 마주 앉지 말고 서울에서 만나요. 그쪽에  
서도 冬至팔죽을 쑤지요?

南(宋漢虎) : 하지요. 오랜 傳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民俗…….

北(백남준) : 지방마다 물론 다르지만 팔죽을 어떻게 만들어 잡습니까?

南(宋漢虎) : 뭐 팔죽에다가 뭐니까, 웅심을 넣어 가지고 만들어 먹고, 또  
그걸 혼자만 아니고 옆에 집에다 같이 나누어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  
제 지내고 그러죠.

北(백남준) : 동국세 시기에 의하면 팔죽 만들어 먹는 方法이 있어요. 붉은  
팔죽을 썬서 거기에 이제 찹쌀가루를 말입니다. 새알처럼 비벼가지고 심  
을 만든다 말이요. 그래 그걸 팔죽에 넣고 꿀을 거기에 타서 그 다음

에 먹는다. 그리고 또 災厄을 막는다고 그러면서 팔죽물을 문짝마다 이렇게 뿌린다는 그런 記錄이 있어요.

南(宋漢虎) : 우리 白先生 몸이 健康하신 것 보니까 동지죽을 자주 드신 모양이지.

北(백남준) : 이따가 동짓날 죽 먹을 때 宋선생 생각하겠습니다.

南(宋漢虎) : 우리 聖經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지,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식으로 열매없는 무화과 나무를 좀 저주했어요.

사실상 우리 會談이 별로 進展을 거두지 못한다든가 혹은 成果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우리 國民들이 失望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批判을 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北(백남준) : 걱정을 한다니 마침 다행입니다. 오늘은 뭐 이거 實務節次 남은게 얼마 없으니까 오늘은 꼭 妥結될 것 같아요.

北(최우진) : 우리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니까 오늘 會談 잘못 했다간 이제 벌을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南(宋漢虎) : 앞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말로 떠들고 외칠 게 아니라 이제 實踐을 통해서 정말 알차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오늘 아주 妥結합시다. 오늘 다 마무리져 가지고…….

北(백남준) : 古代 페르시아에서는 동짓날에 이제 그걸 태양이 탄생한 날이다, 그래가지고서 탄생한 날로 정해가지고선 태양의 부활을 축하했던 말이에요. 그날에 태양이 부활, 미트라교라고 하는데, 그 미트라교가 태양의 부활을 축하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예수를 믿으시니까 또 뭣인가 하면 오늘 約束대로 안하면 아마 노여움

을 사게 될 겁니다.

南(宋漢虎) : 하여간 오늘 다 마무리져 가지고 아주 來年에는 總理들의 만남이 實現되도록 이렇게 한번 共同의 努力을 합시다.

北(최우진) : 오늘 해는 이틀 있으면 이제 제일 짧아지는데 冬至니까, 낮 시간이 9시간 25분, 平壤時間이 9시간 25분이니까 제일 짧지요. 그 다음에 夏至하고 冬至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는가 하면 5시간 30분 차이가 난다 말이죠, 平壤時間으로. 그러니까 이틀 있으면 해가 제일 짧습니다. 낮시간이 5시간 30분 낮시간이 짧으니까, 다그쳐서…….

南(宋漢虎) : 전적으로 同感이고…….

北(백남준) : 어때요. 그쪽에 요즘 예년에 비해서 일기가 어떻습니까?

南(宋漢虎) : 일기는 비교적 따뜻한 편입니다. 따뜻한 편이고, 눈도 우리 東部地域은 왔지만 우리 서울이나 中部地域에서는 지난 11월달에 오고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았습시다. 平壤쪽은 어떻습니까?

北(백남준) : 아마도 異常氣候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今年에 비가 내려야 될 때 가물고 또 비가 내리지 말아야 될 때 또 장마가 지고, 그런데 지금이 12월 20일이니까 大同江 기슭은 얼음이 조금 가아 됩니다. 今年度는 얼음이 아직 안가고 낮氣溫이 아직도 영하로 떨어져 본 일이 없으니까 오늘도 낮기온이 5℃이고, 새벽기온이 보통 2℃, 3℃, 4℃ 그런 정도로 대단히 더운데 異常氣候가 世界的으로 아마 被害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南(宋漢虎) : 글썄요, 제가 어렸을 때 記憶을 하면 제가 平壤에 있었을 때 11월 초순에 國民學校 다닐 때에 스토브를 뺏습니다.

北(백남준) : 아, 내가 정말 宋先生 平壤에 계셨을 때 이야기하시는데

요전에 사진을 준거 있었잖아요. 나는 우리 側에 갔었을 때 寫眞을 意圖  
的으로 잘 찍어 드리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寫眞을 집에 가서 보  
였더니만 동네 사는 사람이 보고서 아, 이분이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南(宋漢虎) : 누가 그래요? 누가?(일동 웃음)

北(백남준) : 그래서 失禮가 돼서 묻지도 못하고 있는건데 平壤에 사셨다  
니까 틀림이 없구만 그러면.

南(宋漢虎) : 요다음에 平壤에 가면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北(백남준) : 아, 그럼 故郷사람이구만 뭐. 우리 平安道 사람들은 透徹한데  
그저 어물쩍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특  
탈어 놓고 妥結합시다.

南(宋漢虎) : 그렇게 합시다.

南(朴鍾權) : 12월초에 말타에서 美·蘇頂上이 모여서 世界問題를 論議했  
는데 우리 韓半島의 問題를 우리가 解決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좋은 進展이 있도록 合意해 나가도록 합시다.

北(백남준) : 말타에서 美·蘇會談이 있었는데 뭐, 軍縮問題랑 協議했다고 그  
럽니다. 진실로 軍縮을 하고 緩和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  
까.

그런데 지금 軍縮이 世界的인 趨勢인데 朝鮮半島만이 冷戰의 孤島로  
남아 있으면 안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冷戰을 풀자면 어느 大國이 우  
리한테 선물을 안해 줘요. 선사 안한다 그말입니다. 朝鮮半島의 主人이야  
우리 民族이니까 民族이 自己 主人의 구실을 해서 우리 朝鮮半島에서 아  
예 戰爭의 根源을 송두리채 뽑아 버려야 합니다.

南(宋漢虎) : 자, 그렇습니다.

이제 80년대도 며칠 안 남았고 내년도는 90년대의 첫해가 되는데 우리 90년대는 80년대의 對決이라든가 不信의 關係를 清算하고 和解와 協力關係로 發展시키고 우리 統一로 이어지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금년에 妥結 짓고…….

北(백남준) : 아, 어떻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南(宋漢虎) : 90년대의 첫해인 내년에 和解와 協力の 元年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歷史적으로 그렇게 記錄되도록 같이 좀 努力하고, 그러려면 우리 오늘 정말 다 마무리짓고 빠른 시일내에 總理들의 만남이 성사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백남준) : 緩和의 물결이 우리한테 온 다음에 冷戰의 孤島에서 解放된다 그러지 말고 民族의 主體的인 努力 이것이 제일 重要합니다. 主人 구실을 해야 합니다.

南(宋漢虎) : 그래서 우리도 國政指標를 民族自尊으로 내세웠습니다.

北(최우진) : 團長동지들이 서로 말씀을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걸 보니까 會談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內外記者들 앞에서 오늘 會談을 잘 하고 많은 問題 妥結해서 合意點을 찾자 이렇게 約束을 했으니까 오늘 그렇게 해 나가리라고 기대를 가지니까 상당히 기쁩니다.

南(宋漢虎) : 白先生, 그리고 이 해도 저물고 아무래도 새해나 가서 만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오면서 조그마한, 代表 다섯분 하고 저 뒤에서 수고하는 隨行員 몇분에게 드릴 선물을 하나 準備를 했습니다. 濟州道에서 生産되는 감귤인데 우리 會談 끝난 다음에 連絡官을 통해서 그쪽에 傳達할테니까 誠意로 알고 받아 주세요.

北(백남준) : 감사합니다.

南(宋漢虎) : 그래서 우리 다같이 對話와 統一을 위해서 努力하는 同業者 들끼리이니까, 이 해를 그냥 그대로 보낼 수 없어서 誠意를…….

北(백남준) : 우리도 이제 뒷인가 連絡官들을 통해서 다섯분 代表하고 隨員 네분하고 또 보내드려야지, 뭐.

南(宋漢虎) : 제가 신덕물을 좋아하니까 신덕 샘플을 보내세요. (一同 웃음)

北(백남준) : 그렇게 합시다.

南(宋漢虎) : 신덕 샘플을 보내면 제가 서울에 사는 용강출신 故鄉분들에게 나눠드리지요.

北(최우진) : 서울에 용강출신 몇분이나 계십니까?

南(宋漢虎) : 많지요, 많습니다.

지난번 한 3일전에 平安南道 出身들이 送年會를 가졌어요. 거기에 500명 정도의 有志들이 모여서 이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같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南(金三勳) : 샘플을 보내실려면 어려울테니까 샘플을 거기 가서 드실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서 故鄉訪問을 하도록 해 드리면 아주 서로 쉽고 좋겠네요.

南(朴鍾權) : 최우진 代表는 故鄉이 어디입니까?

北(최우진) : 나, 平壤입니다. 朴代表는 故鄉이 어디입니까?

南(朴鍾權) : 釜山입니다.

北(최우진) : 釜山, 제일 남쪽에서 오셨구만.

南(宋漢虎) : 자, 그러면 會談 시작 할까요. 좀, 자리를 整理하도록 합시다.

北(최우진) : 釜山은 따뜻하지요.

南(朴鍾權) : 그럼요. 매우 따뜻하지요.

北(최우진) : 겨울에도 溫和하지요?

南(朴鍾權) : 그럼요.

北(최우진) : 눈이 쌓이지 않잖습니까?

南(朴鍾權) : 釜山쪽에는 조금밖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平壤 쪽에는 눈이 많이 오지요?

北(최우진) : 올해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고 있어요.

北(백남준) : 제가 오늘 …….

南(宋漢虎) : 먼저 하십시오.

北(백남준)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 北側 基調發言 >

宋漢虎·首席代表先生.

南側代表 여러분.

우리는 이제 머지 않아 현세기의 마지막 년대인 1990년대 첫해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의 民族으로서의 紐帶를 회복하고 統一된 祖國을 안아올 새로운 년대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오늘 쌍방대표들이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렇게 마주앉게 된 것은 매우 의의있고 기쁜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늘 板門店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상봉과 기쁨은 하루빨리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誕生시키는 기쁨으로 이어지고 온 겨레에게 和解와 統一의 기쁨을 안겨주는 민족적 경사로 확대되어야 할것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해가 바뀌고 分裂의 年輪이 더해갈수록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것은 祖國統一에 대한 겨레의 熱望입니다.

우리의 豫備會談을 성공적으로 結束하고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조속히 마련하는것은 근 반세기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과 남사이의 反目과 對決을 끝장내고 和解와 緩和, 團合과 統一을 위하여 지체시킬수 없는 온 民族의 절박한 要求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民族앞에 지닌 숭고한 使命感을 안고 오늘의 豫備會談을 성공적으로 結束함으로써 80년대를 보내고 새로운 대망의 년대에 들어서는데 우리 겨레에게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의 開催 소식을 전하고 祖國統一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豫備會談을 조속히 妥結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對話氛圍氣를 흐리게 하고 會談앞에 難關을 造成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말며 互相 理解와 團合의 精神을 높이 發揚하는 것입니다.

북과 남이 다같이 대결과 분렬을 반대하고 對話와 統一의 立場에서 서로 理解하고 讓步하는 정신을 발양한다면 좋은 분위기속에서 豫備會談을 進展시키고 상정된 問題들에 대한 合意點을 찾을수 있게 될것입니다.

지난 네차례의 豫備會談을 통하여 내놓은 쌍방의 실무절차안과 지금까지의 토의정형을 종합하여보면 공통점과 유사점이 많으며 差異있는 것은 本會談名稱과 議題問題, 代表團 構成問題와 같은 것들입니다.

회담 명칭과 의제, 대표단구성문제에서 쌍방의 견해차이를 좁히고 좋은 合意點을 摸索하는 基準은 어디까지나 본 회담의 特性과 使命에 부합되며 그것을 조속히 성사시키고 그것이 完화와 統一指向的인 것으로 되게 풀

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本會談名稱問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會談名稱問題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이미 지난 會談들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련되게 될 本會談은 북과 남사이의 對決과 緊張을 解消하고 민족적 和解와 團합을 도모하기 위한 회담으로서 명칭은 마땅히 그 級과 特徵, 使命에 맞게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으로 정립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호칭한다면 우리 거래들도 그것이 어떤 회담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고 또 統一指向的 要求에도 맞는 회담명칭으로 될것입니다.

그러나 본회담의 명칭을 《南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南北總理會談》으로 할데 대한 貴側의 主張은 회담의 性格과 特性을 정확히 反映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뿐아니라 마치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會談과 같은 印象을 주고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북과 남의 政治軍事 실권자들이 마주앉아 당면한 정치군사적 對決狀態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게 될 회담의 級과 使命에 맞게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으로 할것을 다시금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本會談 議題問題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本會談 議題는 여러가지 형식과 내용으로 설정할수 있겠지만 包括的인 單一議題 形式으로 정하는것이 여러모로 合理的입니다.

우리는 貴側이 지난 第4次 豫備會談때 여러가지 項目으로 細部化된 議題形式을 철회하고 우리측의 包括的인 單一議題形式에 同意해 나온것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쌍방이 본회담의제를 包括的인 단일의제로 할데 대한 의제형식에 합의한 이제와서 議題內容을 어떻게 規定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회담을 發起할 때 본회담의 의제를 包括的인 單一議題인 《北과 南사이의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하여》로 할것을 提起하였으며 예비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政治軍事的對決은 不信과 對決을 조장하고 戰爭危險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민족적 和解와 祖國統一을 가로막는 커다란 障礙로 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 반목과 대결은 중요하게 北과 南이 政治軍事的으로 對決되어있는데 그 原因이 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여러 분야에서 協力과 交流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중요한 原因도 서로 政治軍事的으로 對決되어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사이의 政治軍事的對決狀態를 解消하는것은 긴장과 戰爭危險을 제거하고 대화와 완화와 단합을 도모하는 최소한의 原則的要求로 되며 祖國統一의 轉換的인 局面을 일어나갈수 있는 관건적문제로 되고있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政治軍事的對決狀態를 解消하는것이야말로 당면하여 北南關係全般을 改善하고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확고한 기초를 마련해 나갈수 있는 中核的이며 先決的인 문제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本會談의 議題를 《北과 南사이의 당면한 政治軍事的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하여》라는 包括的인 單一議題로 확정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지극히 정당한것입니다.

귀측도 인정하고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北과 南사이의 당면한 政治軍事的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하여》라는 議題에서 서로의 誹謗中傷의 中止問題, 다방면적인 協力과 交流 實現問題, 軍事的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한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包括적으로 토의해결할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그런것만큼 귀측의 단일의제속에 들어있는 《南北間的 多角的인 交流, 協力問題》는 우리측의 《북과 남사이의 당면한 政治軍事的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하여》로 할데 대한 議題에 包容되어있으며 그안에서 토의해결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本會談議題에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 협력문제》를 명기하자는것은 內容重複을 의미하며 不必要한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議題는 우리側이 提議한대로 《북과 남사이의 당면한 政治軍事的對決狀態를 해소할데 대하여》로 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代表團構成問題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本회담대표단을 회담의 權能과 使命에 맞게 구성해야한다는것은 구태여 논의할 필요도 없는것입니다.

우리가 마련하려는 本會談은 政治的對決狀態를 가시는것과 함께 軍事的對決狀態를 解消하고 전쟁위험을 防止하는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本會談代表團에는 軍事的對決狀態를 해소하는데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總參謀長級, 귀측으로 말하면 軍參謀總長級을 포함한 軍實權者 2명이 最小限 참가하여야 합니다.

本會談 隨行員數는 우리측이 30명으로 할데 대한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귀측이 굳이 30명내외로 하자고 주장하고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아량을 보여 수행원수를 30名内外로 하되 同數로 할것을 제  
의합니다.

나는 실무절차문제에서 서로 차이나고있는 회담 명칭, 의제, 대표단구성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아량있고 公明正大한 提案이 귀측의 肯定的인 呼  
應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본회담실무절차와 관련한 合意書草案을 내놓  
으려고 합니다.

## 合 意 書 ( 草 案 )

### 1. 會談名稱

회담명칭은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이하 회담이라고 한다.)으로 한  
다.

### 2. 會談時日

1차 회담은 豫備會談이 結束된후 1개월안에 開催하되 1차회담날자를  
정할 때 2차회담날자도 함께 정하고 그다음 회담부터는 매차 雙方이  
合意하여 정한다.

### 3. 會談場所

회담은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가면서 하되 제 1차회담은 서울에서, 2  
차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 4. 會談議題

회담의제는 《북과 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할데 대  
하여》로 한다.

## 5. 會談代表團構成

회담대표단은 總理를 단장으로 하여 7명으로 하되, 部長, 副部長級으로 구성한다.

대표단에는 軍總참모장급을 비롯하여 軍實權者 2名을 포함한다.

## 6. 會談隨員과 隨行記者

회담수원은 30명내외로 하되 同數로 한다.

수행기자는 50명으로 한다.

## 7. 會談形式

회담은 雙方會談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총리단독회담과 부문별 회담도 할수 있다. 회담은 公開 또는 非公開로 한다.

## 8. 合意書採擇

合意書內容은 각기 2통씩 文書로 作成하여 대표단 단장이 서명한 다음 1통씩 交換한다.

## 9. 會談記錄

회담기록은 速記, 錄音, 錄畫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10. 會談報道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雙方合意에 따라 합의내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할수 있다.

## 11. 會談場 標識 및 施設

① 회담장에는 어떠한 標識도 하지 않는다.

② 招請側은 회담장에서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연락할수 있도록 通信施設을 설치한다.

## 12. 身邊安全保障

- ① 쌍방은 會談을 위하여 상대측을 래왕하는 인원들의 身邊安全을 擔保하는 總理名義로 된 각서를 회담 7일전에 板門店에서 交換한다.
- ② 초청측은 상대측 인원들의 문서, 통신, 사무용 기재, 사진, 필름, 녹음 및 록화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會談에 필요한 携帶品에 대한 不可侵을 保障한다.

## 13. 代表團 標識 및 證明書

- ① 쌍방대표단은 자기측 總理가 발행한 身分證明書を 지참한다.
- ② 기자는 記者腕章을 착용한다.

## 14. 板門店 通過秩序

-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名單을 회담 3일전에 넘겨준다.
- ② 명단에는 姓名, 性別, 代表團職位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 ③ 명단을 넘겨준후 변동사항은 直通電話로 통지하고 板門店을 통하여 이를 전달한다.
- ④ 대표단과 기자단의 판문점통과지점은 軍事分界線上에 있는 건물로 한다.
- ⑤ 초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名單에 따라 신분을 대조확인하고 상대측 인원들을 接受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確認한다.

## 15. 記者들의 取材活動

쌍방은 체류기간 상대측 기자들의 회담과 관련한 取材活動을 保障하며 서로의 신뢰와 리해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正確성과 公正성을 보장한다.

## 16. 滯留日程

상대측 지역에 滯留하는 日程은 3박 4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調節할수 있다.

## 17. 便宜保障

- ① 招請側은 체류기간 상대측 인원들의 숙식, 交通, 통신, 의료, 보도 및 기타 필요한 모든 便宜를 無償으로 제공한다.
- ②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招請側의 案内와 秩序에 따 른다.
- ③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의 자기측지역 체류기간중 1일 2회의 行囊 運搬을 보장한다.

## 18. 儀 禮

滯留期間 儀禮問題는 쌍방실무자들사이에 協議하여 해결한다.

## 19. 直通電話

쌍방은 이미 가설된 평양과 서울사이의 直通電話線을 利用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協議하여 增設할수 있다.

## 20. 合意書 發効

合意書는 交換된 때로부터 有効하다.

나는 이상과 같이 본회담실무절차와 관련한 우리의 立場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貴側의 肯定的인 呼應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南(宋漢虎):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뭐 나는 좀 새로운 것 가지고 오늘 한 이삼십분이면 끝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貴側의 첫 發言을 들어보니



까 좀 까마득한 느낌이 드는데요.

北(백남준) : 그러면 宋선생님 새로운 것 가지고 왔으면 그게 또 合意基  
礎가 되지 않겠나요?

南(宋漢虎) : 내 참, 좀 실망이 큼니다.

北(백남준) : 합의서 草案 드릴게요.

南(宋漢虎)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발언을 하겠습니다.

### < 우리側 첫發言 >

北側代表 여러분!

나는 먼저 이곳 板門店 우리측 地域 『平和의 집』에 온 北側代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난 11월에 있었던 第4次 豫備會談에 이어 약 한  
달만에 第5次 會談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貴側이 지난번 會談에서 會談外的인 問題를 舉論하지 않고 南北  
高位當局者會談의 成事を 위한 實務節次問題 討議에 呼應해 나온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第4次 會談에서 우리 雙方은 南北高位當局者會談 成事を 위해 相互 심  
도있는 意見 交換을 할 수 있었으며 生産的이고 能率的인 會談을 進行  
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對決의 時代를 清算하고 和解와 協力の 새 時代를 열어야 한다는 것  
은 南北의 공통된 所望입니다.

和解와 協力の 새 時代를 열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측의 일관된 立場

이며, 貴側 역시 이에 同感을 表示하고 同族으로서 和解하고 團合하는 새 時代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強調한 바 있습니다.

『和解와 協力』은 南北間의 高位當局者會談을 마련하려는 이 豫備會談에서 부터 그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나는 지난 第4次 豫備會談의 좋은 先例를 본받아 오늘 會談도 순조롭게 進行되기를 期待합니다. 아울러 나는 우리에게 맡겨진 基本任務를 오늘 會談에서 마무리 지음으로써 온 겨레가 바라고 있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이 조속히 開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이제 나는 지난번 會談까지의 討議結果를 토대로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節次問題에 대한 우리측의 立場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간 南北雙方은 本會談 開催問題와 관련하여 ① 本會談은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開催한다. ② 第1次 本會談은 豫備會談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서울에서 開催한다. ③ 雙方의 記者團 數는 각기 50명으로 한다는 등 세가지 問題에 대해서 완전히 意見一致를 보았습니다.

나는 雙方間에 意見差異를 보이고 있는 나머지 問題들에 대해서도 서로 互讓의 精神을 발휘한다면 쉽게 合意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第4次 豫備會談에서 本會談 形式, 合意書 採擇, 信任狀 交換 등 총 16個 項目에 달하는 本會談의 細部運營節次 問題에 대한 우리측의 意見을 정리하여 提示하고 이를 檢討·協議하여 合意文으로 作成할 것을 貴側에 提議한 바 있습니다.

나는 오늘 會談에서 이에 대한 雙方間의 意見折衷을 통해 合意文을 作成하는 段階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會談을 한걸음 더 前進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오늘 會談의 원만한 進行을 위해 本會談의 名稱, 議題 및 代表團 構成 등에 대한 우리측의 立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本會談 名稱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측은 本會談의 名稱을 南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南北總理會談으로 하자고 한데 대하여 貴側은 雙方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으로 하자고 계속 主張하고 있습니다.

貴側은 이 問題와 관련하여 本會談은 南北關係 全般에 대한 問題를 다루는 會談이 아니라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만을 다룰 것을 使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政治軍事會談으로 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또한 貴側은 高位當局者會談 또는 總理會談이란 名稱이 나라와 나라사이에서 一般的으로 불리는 名稱이라는 印象을 주기때문에 反對한다는 立場도 表明하고 있습니다.

貴側의 이러한 主張은 몹시 편협된 主張일 뿐 아니라 정당성도 없고 現實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측이 누차 強調해 온 바와 같이 南北의 總理들이 만나는 會談에서는 南北關係 改善을 이룩하는 問題들이 폭넓게 討議되어야 할 것입니다.

南北의 總理들이 만나는 會談에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만을 討議하고 南北關係 改善에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交流·協力問題

나 通信, 通行, 通商과 같은 問題들을 討議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和解와 協力の 새 時代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날 南과 北에는 大韓民國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라는 두 개의 政治的 實體가 獰연히 存在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否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獰연한 현실에 눈을 감고 相互尊重을 하지 않으며 相互間的 關係 改善을 이룩해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對決을 清算하고 緊張을 解消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和解와 協力の 새 時代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現實認定이 基礎가 되어야 하며, 現實認定과 相互尊重의 基礎가 튼튼할 때 비로소 平和統一의 길도 쉽게 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貴側이 雙方 當局을 代表하는 總理들의 會談에 同意해 나온 것은 바로 이같은 現實認定과 相互尊重의 精神에 立脚해서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和解와 協力の 새 時代를 열어나가겠다는 意志를 보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견지에서 볼 때 貴側이 當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만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政治軍事會談으로 呼稱해야 한다거나 나라와 나라사이의 會談에서 일반적으로 呼稱되는 것이기 때문에 南北總理會談이라는 名稱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主張이라 할 수 없습니다.

南北의 總理들이 만나는 會談을 南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南北總理會談으로 부르는 것은 會談의 目的이나 內容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當연한 일이며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貴側이 더이상 이 問題에 대해서 고집하지 말고 우리측 提議에 同意해 올 것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本會談의 議題問題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나는 지난번 第4次 豫備會談에서 貴側 主張을 大幅 受容한 包括的 單一議題 즉, 『南北間의 다각적인 交流・協力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를 修正議題로 提議한 바 있습니다.

나는 지난번 會談에서 왜 貴側 主張을 大幅 受容하는 이와 같은 修正議題를 提議하였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會談에서는 더 이상 자세한 說明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다만 나는 이 問題에 대해서 貴側이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發言들을 통해 南北間의 交流・協力を 굳이 反對하지 않는다는 意思를 表明해 왔고, 그 必要性을 認定해 왔던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측 立場과 貴側 主張을 다같이 受容한 우리측의 修正議題를 貴側이 받아들임으로써 이 問題를 매듭짓고 빠른 시일안에 本會談을 開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本會談 代表團 構成問題에 관해 말하겠습니다.

이 問題는 이미 雙方間에 本會談의 代表를 7명으로 構成하자는데 合意를 보았습니다.

雙方間에 見解差가 있는 것은 軍代表를 1명으로 하느냐 아니면 2명으로 하느냐 하는 問題와 隨行員 數를 『30명 내외』로 하느냐 『30명』으로 하느냐 하는 두가지 問題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軍代表 問題에 있어서 나는 지난번에도 누차 強調한 바와 같이

軍實權者라는 막연한 表現을 쓸 것이 아니라 軍參謀總長級이라고 그 級을 明示해야 서로 불필요한 混亂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 數도 우리側으로서는 1명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는 貴側이 쓰고 있는 軍實權者란 말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理解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측으로서는 參謀總長級 軍代表 1명이면 얼마든지 중요한 軍事問題들을 責任있게 討議할 수 있다는 立場입니다.

한편 隨行員 數 問題에서는 지난번 會談에서 우리측이 30명 내외로 해서 30명에서 4, 5명 정도의 융통성을 두도록 하자고 提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貴측이 오늘 우리의 提案에 동의해 왔기 때문에 수행원 問題는 이제 의견 일치를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상에서 서로 見解差가 있는 세가지 部分 즉, 本會談名稱, 議題 및 代表團 構成問題들에 대한 우리측의 立場을 말씀드렸습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이제 80年代도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으며 待望의 90年代가 目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20世紀의 마지막 年代를 平和와 統一의 年代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이 조속히 成事되어 南北關係 改善의 突破口가 마련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準備하는 우리 豫備會談 代表들에게는 막중한 責任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會談에서 相互 尊重과 互讓의 精神을 발휘하여 豫備會談을 妥結함으로써 온 겨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北(백남준) : 수고 많았습니다.

宋先生, 발언 듣고보니까 역시 실망스럽구만요. 거저 아무런 變化도 없 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계속 평행선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오늘 우리 合意書 草案을 내놨으니까 그거 인제 문제토의에서 基礎가 되지 않겠냐, 그 合意書는 전번에 4차때 宋先生이 정리를 해서 : 提起한거 순서든지 또 그 표현이라든가 그런걸 다 참작을 해서 그래서 提起를 했는데 그게 이제 協議의 基礎가 되지 않겠냐 그대 생각을 : 하는데 역시 그제 오늘 雙方의 발언을 통해 듣고 보면 會談名稱, 議題, 역시 代表團構成에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宋先生 말씀하셨으니까 이 會談名稱으로부터 하나하나 또 우리 의견을 交換해 봅시다.

南(宋漢虎) : 그렇게 하지요.

北(백남준) :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會談名稱을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 했는데 그거 받아들여십시요.

그 명칭이 누가 봐도 가장 合理的이고 완벽한 겁니다. 거 받아들입 시다. 거 받아들여놓고 해야지, 오늘도 또 이렇게 거 宋先生께서 高位 當局者會談으로 하자. 總理會談으로 하자 또 이렇게 하는데 그 會談의, 우리 會談의 그런 合理性, 그쪽 會談의 不合理的 점들과 부족점들은 1 차, 2차때 많이 얘기가 됐어요. 전번 會談때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 그제 뭐, 명칭에서 政治軍事라는거 반영하는 거, 그 뭐 받아들이지 못할 무슨 事情이 있습니까?

南(宋漢虎) : 내가 되묻겠는데 貴側이 과거 여러차례 뭐 總理接觸이다, 南北總理會談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걸 꼭 다시 바꿔가지고 政

治軍事會談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北(백남준) : 언제? 우리가 뭐, 언제 우리가 總理會談하자고 한적이 있는가?

南(宋漢虎) : 아, 저 80년대 우리 總理間的 대화를 위한 實務代表接觸이 여기 板門店에서 있었어요.

아, 그때에, 그때에 貴側에서는 南北總理接觸이라고 이름 부르자고 그랬지요?

北(백남준) : 예. 그건 認定합니다.

南(宋漢虎) : 그건 認定하지요?

北(백남준) : 認定하는데 그 會談하고…….

南(宋漢虎) : 글썄 그러고 그건 認定하는거고, 그 다음에 87년도에, 지난번에 내가 언급을 했는 것 같은데 87년도 1월달에 貴側이 南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하자고 그러면서 저희한테다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總理會談을 하자 그랬더니 貴側의 政務院 總理가 우리 總理한테 회신을 보내면서 會談形式에 구애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南北總理會談으로…….

北(백남준) : 宋先生, 뭐…….

南(宋漢虎) : 아니 그런적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總理會談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일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서 왜 南北關係 狀況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난 그거 저 理解가 안간다 이거예요.



北(백남준) : 그거는 宋先生이 밝지 못한거요. 왜 宋先生이 밝지 못한가 하면, 그전에 우리가 總理接觸을 위한 實務代表들의 만남이 있었지요. 또 그 다음에 전번에 宋先生이 말씀하고 오늘도 또 말씀한 건대 總理會談이라는 거 우리가 하자고, 또 그쪽에다 우리가 답신을 보냈던 일도 있단 말입니다.

南(宋漢虎) :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지금 안되느냐 이거예요.

北(백남준) : 있는데, 그것이 그 會談이 그때도 우리는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하자고 제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니다, 既存對話를 다 再開를 하라, 그리고 最高責任者會談을 한 다음에 보자. 첫편지에서, 회답편지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니 그 既存對話도 하자, 그것도 재개를 하고 그리고 政治, 高位級政治軍事會談을 하자, 이렇게 그리고 水資源 問題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討論 하겠다. 이렇게 하니가 그쪽에서 또 답신이 왔는데 어떻게 됐는가. 水資源問題 먼저 討論하고, 그 다음에 經濟會談, 赤十字會談등 既存對話를 다 하고 그 다음에 總理會談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래 좋다, 總理接觸이라도 하자, 그러면 總理接觸을 하고서 우리가 제기되는 問題들을 討論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條件附的으로 水資源會談, 既存對話를 다 여는 조건에서, 그것을 한 조건에서만 總理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豫備會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내용이지요. 이렇게 된 내용인데 그것이 결국 뭐인가 하면 그것은 출발됐다 그것으로서 끝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해 11월 16일에 우리 總理가 그쪽 總理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출발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은건데 아 그

거하고 이거야 또 다르지요.

北(김영철) : 그럼, 출발기초가 다르지요.

南(宋漢虎) : 아니 출발기초가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에 貴側이 하여간 어  
떻든간에…….

北(백남준) : 아니 가만, 혼자 자꾸 말씀 다하시자고 하지 말고, 그럼 좋  
습니다.

만약에 이게 政治軍事問題를 名稱에다 반영 못할 사정이 있으면 내가 그  
럼 이제 획기적인 그런 절충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오늘 會談에서 제기된 雙方의 基本發言들과 論議된 것을 보면 本會談  
名稱問題와 관련한 雙方사이의 견해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  
다.

우리가 지금까지 會談名稱을 北南高位級政治軍事會談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은 北南사이에서 분열 40여년만에 처음으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  
消하기 위한 실질적인 問題討議가 진행되게 되는 만큼 會談名稱을 하나  
정하여도 本會談의 性格과 使命에 가장 적중하게 어울리며 내용적으로도  
완벽한 것으로 하려는 취지에서 출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貴側이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언제까지나 이  
問題를 가지고 시간과 정력을 무한정 소비하며 本會談의 開催를 더이상  
지체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는 雙方提案 가운데서 공통된 부분을 살리고 차  
이나는 부분은 피하는 방법으로 雙方 案을 절충하여 會談名稱을 「北南  
高位級會談」, 「北南高位級會談」으로 하자는 새로운 修正提案을 貴側에 정  
중히 提起하는 바입니다.

會談名稱을 北南高位級會談으로 할데 대한 우리의 새로운 수정제안은 어느 일방의 主張이나 利害關係만이 아닌 雙方의 견해가 공통하게 反映된 매우 公明正大한 方案인 만큼 雙方의 合意를 이룩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北南高位級會談이라는 名稱에는 한나라, 한민족 안에서 진행되는 北과 南 사이의 會談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안겨오고 있으며 會談級數도 함축되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는 會談名稱을 北南高位級會談으로 하는데 貴側이 이의가 없으리라고 보면서 기꺼이 동의해 나서리라는 期待를 표시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타결합시다. 거 뭐 자꾸 길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南(宋漢虎) : 貴側이 이제 그 名稱問題와 관련해서 그동안 政治軍事會談으로 하자 그렇게 主張을 하다가 하나의 절충안으로서 이제 南北高位級會談으로 이렇게 수정제의 했는데 이것은 名稱問題와 관련하여 雙方의 일 단 의견들을 다른 의견들을 克服하기 위한 하나의 妥協案이라고 나는 일 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問題에 대해서는 名稱問題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問題에 대한 내 답변은 조금 있다가 貴側에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北(백남준) : 그렇습니까?

南(宋漢虎) : 네

北(백남준) : 무슨 案이 뭐…….

北(최우진) : 오늘 전달하겠습니까?

南(宋漢虎) : 오늘 중으로 내가 드릴게요.

北(백남준) : 뭐 宋先生이 앉아서, 여기 앉아서 그냥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무슨.

南(宋漢虎) : 그 다음에 議題問題 한번 얘기합시다.

北(백남준) : 議題問題와 관련해서 제가 그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題問題는, 議題問題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나가다가는 이 雙方會談인데 언제까지나 이 교차점을 찾지 못합니다.

南(宋漢虎) : 그러니까 제가…….

北(백남준) : 그러니까 이거 互相讓步를 하고…….

南(宋漢虎) : 우리가 양보해서……案을 다 냈는데 필.

北(백남준) : 合意되면 前進하고 해야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會談議程問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 雙方사이에서 論議된걸 보면 일부 측면에서는 合意됐거나 또 일부 측면에서는 상당한 意見接近이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議程 形式問題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이제 호상 발언에서 확인한 것처럼 包括的인 議題로 하는데 합의를 봤고, 包括的인 單一議題로 하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內容에서도 內容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이런 問題에서도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점에서는 쌍방이 공동의 견해가 合意된 셈입니다.

이제 논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 뭐인가 하면 貴側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北南間의 多角的인 交流·協力 實施問題를 이걸 政治·軍事的 對決

狀態를 解消시키는 問題와 別개시켜서 會談議程으로 正식화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 하는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立場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를 會談의 議程으로 하는데 原則적으로 쌍방이 意見一致를 보고 있는 것만큼 이와 관련해서는 구태여 協力·交流問題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전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北南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에는 協력과 交流問題도 그것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貴側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문젠입니다. 전번에 宋先生 4차회담때 基本發言을 통해서 바로 그점을 유의한다고 하면서 會談議程에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를 넣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南北 交流·協力問題는 貴側의 案에서도 보면 증전에 세부조항에 들어 있던 겁니다.

여섯개 項目 가운데서 세번째 項目에 들어있던 건데 이걸 議題로, 議題를 包括議題로 하는데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細部議題에 있던 이런 특정항목을 선택해서 包括議程에 올려 놓아서 包含시키자고 하는 것은 이 건 누가 봐도 불필요한 重複이고 이 건 무리한 主張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와 이 協력과 交流問題는 서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多方面的인 協력과 交流라는 것은 政治·軍事分野를 비롯한 모든 分野에서 交流協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交流·協力問題를 政治·軍事問題와 분리시켜 놓는 問題設定 自體가 이게 정확한 것이 못됩니다. 또 그들 互相關係로 봐도 交流·協力問題가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하나의 方途·方法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그를 互相 聯關關係를 놓고보나 문제의 성격으로 놓고 보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문제와 交流·協力 實施問題를 한 계열에 놓아서 議題化한다는 것은 論理上 矛盾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우기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北南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한 문제 앞에는 北南交流·協力問題를 놓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北南關係에서 기본고리아 어디까지나 政治·軍事的 문제입니다. 그것은 北과 南이 대결을 격화시키는 根本要因이 政治·軍事的 問題고 그것이 가장 중핵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해 봐도 對決關係에 있는 雙方사이의 관계를 改善하자면 서로 가슴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물건이나 주고받고 장사나 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關係가 풀리라고 보는 것은 이견 幻想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交流·協力問題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 앞에 까지 놓으려고 하는 것은 顛倒된 이런 主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諸般事實을 놓고 보면 會談議程에 協力 交流問題를 별개로 포함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고 더우기 그것을 政治·軍事的 對決狀態앞에다가 놓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會談議

程은 우리가 提議한대로 北과 南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 데 대하여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 貴側이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려는 이런,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問題로 자꾸 길게 이 얘기를 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내놓은 案대로 北과 南사이의 당연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하여로 하는데 貴側이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南(宋漢虎) : 그 問題와 관련하여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뭐 우리 總理를 비롯해서 高位當局者들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貴側이 주장하는대로 政治·軍事問題만 다를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經濟, 社會, 文化 각 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問題도 같이 協議하자는 것이고 또 서로간에 關係改善이라든가 發展에 관한 問題들도 토의하고, 또 이러한 交流·協力問題를 當局 次元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보장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같은 것도 이제 토의되어야 된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貴側의 立場을 사실상 다 考慮해서, 거의다 受容을 해서 多角的인 交流·協力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 이런 식으로 修正提案을 내놓은 겁니다.

이 修正提案은 사실상 우리 南北交流問題뿐만 아니라 政治·軍事的 問題도 다같이 중요하게 協議·解決하자는 立場에서 나온 거고, 會談의 性格이라든가 會談의 使命에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72년도에 7.4 共同聲明에서 우리 多角的인 交流·協力問題에 대해서 다같이 중요하다. 이것을 協議·解決한다고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北(백남준) : 認定합니다.

南(宋漢虎) : 그렇죠?

北(백남준) : 民族앞에 宣言했죠.

南(宋漢虎)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끊어졌던 民族的 連帶를 回復하고 서로 理解를 增進하고 자주적 平和統一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南北사이의 다방면적인 諸般交流를 實施한다 이렇게 했어요. 다같이. 그만큼 南北間의 交流·協力이 중요하고 信賴를 回復하는데 중요한 과제다 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 交流·協力問題는 사실상 副次的인 문제고 중심적인 것은 政治·軍事問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合意했던 事項하고 矛盾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貴側이, 지난 이야기이지마는 80년 總理會談을 위한 實務代表 接觸이 있었을 때 貴側이 議題를 提示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3차까지만 議題를 提示하지 않고 뭐 總理가 만나서 그저 懸案問題를 提起하고서 討議하면되지 議題를 제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4차회담때 議題를 提示했어요. 提示된 議題를 보면은 南과 北이 各 分野에 걸쳐서 合作하고 團結해서 祖國의 統一을 促進시킬데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貴側은 合作 대신에 協력이 라고 해도 좋고 協調라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백선생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北(백남준) : 나는 송선생 같은 對話꾼은 아닌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南(宋漢虎) : 뿐만 아니라 그때 귀측이 提議할때 議題의 正當性을 強調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라의 平和統一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方途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이 各 分野에 걸쳐서 合作하고 團結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해결되면은 分裂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타 문제들 다 解決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多方面的인 合作·團合 이거야 말로 統一의 根本方途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總理接觸에서 基本對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多方面的인 協力問題가 總理會談에서 基本的인 討議事項이 된다고 귀측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最近의 일입니다. 지난 11월 29일에 國會會談을 위한 第9次 準備接觸이 板門店에서 있었습니다. 議題와 關聯해서 이 南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을 발표하는 거하고 그거와 함께 南北間의 多角的인 交流·協力を 議題로 採擇하자는 데 同意했습니다.

同意를 했어요. 그러면 國會會談의 議題로서 多角的인 交流·協力を 採擇하는데 同意하면서 왜 하필 여기 南北總理가 만나는 이같은 會談에서 多角的인 交流·協力を 議題로 採擇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論理에 맞지 않아요. 전혀 設得力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北(김영철) : 首席代表선생 말씀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會談議題를 妥結하려는 誠意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南(宋漢虎) : 그렇게 斷定的으로 이야기하지마.

北(김영철) : 軍隊는 원래 直線的입니다. 그리고 會談 名稱問題도 그렇고 議題問題도 80년대 總理接觸: 무슨 그것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會談의 始發點이야 지난해 11월 16일 總理들 便紙가 오가면서 이루어진 會談이지, 문제의 始點을 잘 찾아야 된다 말이야. 政治 軍事會談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그러고, 議題問題와 關聯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議題問題 토의에서 사실상 進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進展이 있는가, 우리 包括的인 單一議題가 아주 좋기때문에, 나무랄데 없기때문에 그쪽에서 同意해 나왔고, 이게 첫째 同意한 게고, 둘째는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하자, 이 內容이 좋기때문에 議題內容에 포함시키는데 互相 合意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議題問題 討議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지금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宋先生 잘들어 보십시오. 우리 議題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앞에 그 무슨 多角的인 交流·協力問題를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議題앞에 덧붙여야 되겠는가, 아니면 없애야 되겠는가. 그래서 미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덧붙일 性格의 問題가 아니다. 덧붙이자는 그쪽의 主張에는 論理性도 妥當性도 없는 고집이라고 짝어서 말할수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는가. 내 여러가지 側面에서 말할수 있겠지만, 그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자 하는 우리 議題안에 多角的인 協力·交流問題가 包容돼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또 宋漢虎 首席代表 선생도 그랬고 지난 4차 會談때 여러 代表분들께서 總理등의 高位級들의 만남에서 단순하게 政治·軍事만 討論하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問題討議幅이 狹意하지 않느냐. 그쪽 표현 그대로 引用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常識以下の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政治·軍事問題만 討議하면 交流·協力問題가 탈색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하자면 지나친 憂慮도 하는것 같은데 政治라는게 무엇입니까.

政治라는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한 階級, 어느 한 階層, 어느 한 黨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活動의 總體를 두고 이른 말입니다. 그래 그쪽 辭典類 등도 봤는데 좀 부족하지만 그런 類의 解釋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政治가 管掌하고 있는 範圍는 대단히 지대합니다. 廣幅이라 말입니다. 그러기때문에 社會 各 分野를 다 管掌하고 있습니다. 經濟·外交·文化 이 모든 分野를 다 管掌하는게 政治입니다. 그쪽에서 덧붙이고자 하는 交流·協力問題를 놓고 봐도 交流·協力の 內容을 어떻게 設定하겠는가 하는 問題는 누가 主宰합니까?

政治가 主宰한다 말ियो. 交流·協力の 原則을 어떻게 정하겠는가 하는 것은 무엇이 規定합니까? 바로 政治가 規制합니다.

이런 原理的인 意味를 놓고봐도 政治가 包括하고 있는 範圍는 대단히 넓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놓은 政治的·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자는 議題는 그저 比較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수 있겠는고 하니가 統一의 大廣場에 가는 大通路를 마련하는 하나의 大議題, 큰 議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말하는 交流·協力問題는 大通路를 마련하는데 약간의 도움이나 주겠는지, 일정한 作用이나 하겠는지 하는 정도의 細分化된 小議題다. 일반적으로 볼때 小는 大보다 작단말ियो. 小는 大안에 들어가기 마련이고, 小는 大에 獨占된단 말ियो. 아 이게, 뻔한데 무엇때문에 하필이면 그 細分化된, 大안에 들어가 있는 議題를 끄집어내서 별개의 議題를 만들자 하겠는가, 별개로 치자 하겠는가. 이거 타당치 못하다.

그리고 더우기 우리는 지난 기간 始終一貫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 狀態를 解消하자는 이 안에 多角的 交流・協力問題가 包容되어 있다는 政策的 主張을 명백히 했습니다. 내 그래서 어떻게 명백히 했는가 하는 問題를 1986년 12월 30일 우리 人民의 위대한 수령 金日成 同志께서 그때 施政演說에서 이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어떻게 定式化했는지 내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宋漢虎 首席代表先生, 南側代表 여러분 정중히 傾聽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에서는 호상 誹謗中傷을 중지하여 北南사이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를 실현하여 民族的 유대를 도모하는 문제와 같은 當面한 政治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對策들이 協議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함께 당면한 緊張緩和 措置들이 協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政治的・軍事的 對決狀態 안에 協力・交流問題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 이걸 政策的으로 표명한 定式화된 입장입니다. 이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거 있다는 거, 일단 말입니다.

이듬해 88년 11월 7일날에 내놓은 包括的인 우리 平和方案이 세계 나갔는데 평화방안 큰 두번째 項이 北과 南사이의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緩和하기 위한 방안인데 거기서 政治的 對決狀態를 緩和하기 위한 세번째 내용이 뭐인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과 남은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를 실시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평화방안도 내외에 내놓고 선포한 방안인데 여기도

政治・軍事的 대결상태안에 이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상 우리 議題는 이틀데 없이 나 무랄데 없이 완성된 것입니다. 남자로 말하면 미남얼굴이다. 아 그 좋은 얼굴에다 쓸데없는 혹을 갖다 붙일 필요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런 意味에서 귀측이 우리가 내놓은 議題를 일단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또 그 議題안에 多角的인 交流・協力 內容이 受容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은 아, 무슨 시원스럽게 받아들이면 좋지 그것을 별개시켜서 앞에다 多方面的인 交流라는거 덧붙일 필요가 있겠는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문제는 남북 문제를 푸는데서 가장 中核的이고 중심고리 문제다. 또 先次的으로 풀어야 할 최우선적인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다 力量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의제도 그렇게 설정하자, 말하자면 중심고리라는 것입니다.

저기 한때 宋先生도, 수석대표 선생도 軍에서 일하셨고 저기 朴鍾權先生도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우리 軍隊라는건 그렇습니다.

일단 主打의 방향 그쪽으로는 主攻方向이죠. 主攻方向이 설정되면 거기에다 力量과 氣概를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議題도 좀 시원스럽게 아 명백한데, 거기에다 의제를 설정하면 좋지 무슨 다른 意見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다른 異意가 없다면 우리 議題로 누릅시다.

北(백남준): 우리 議題가 좋아요.

南(廉弘喆):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政治・軍事問題 討議를 排除하는게 아닙니다. 중요하고 中核的이라는 것 다 認定합니다.

저희도 盧泰愚大統領께서 작년 U.N總會 演說에서 또 금년 8·15慶祝 辭에서 또 새 統一方案 發表에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더 進展시키기 위해서 군사문제를 포함한 不可侵宣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토의할 수 있다는 말씀도 분명히 밝히셨는데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立場입니다.

그러나 귀측의 지금 單一議題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런 原則의 問題가 아니라 우리측이 다각적인 交流·協力を 주장하는 것은 그런 의제가 다각적인 교류·협력이라는 의제가 여러 議題중의 하나가 아니고 다각적인 交流·協力이라는 그 의제와 또 귀측이 얘기하는 政治·軍事問題라는 그 議題는 중요한 두개의 축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두개의 축이다. 정치·군사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의제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交流·協力이라는 축과 政治·軍事問題라는 그 두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政治·軍事問題도 중요하고 교류·협력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이고 선차적이고 선결적인 문제는 交流·協力問題다 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北(백남준) : 물좀 더 듭시다. 나는 이런 물을 좋아합니다.

南(廉弘喆) : 그 論據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군사적 대결의 原因이 됩니까?

우리가 不信이 없으면 군사적 對決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不信이 군사적 대결의 原因이기 때문에, 그러면 原因을 除去하면 軍事的 對決問題가 緩和됩니다.

그러면 原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軍縮하자 하는 그런 主張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相互間的 信賴가 이렇게 構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交流・協力を 통해서 상호간의 信賴를 구축하고 不信을 해소하고, 그러면 정치・군사문제의 토의에도 더 與件이 造成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측의 立場인 것입니다.

지난번 김영철대표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총을 겨누는 상황에서 어떻게 물건을 싣고 南北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때문에 政治・軍事問題가 더 先次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不信때문에 軍事的 對決을 하고 있지만 이게 現實입니다. 그러나 南北이 協議해서, 남북 당국자들이 협의해서 우리 交流하자. 그래서 物件 이번에 싣고가고 故鄉訪問團이 왕래되고 하는 것을 保障하면 보장하는 그순간 그것을 實現하는 그 과정동안은 軍事的인 어떤 총을 겨누는 問題가 解消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것들이 여러번 蓄積이 될때 남북의 不信이 解消되고 상호 誤解가 풀리고 또 信賴가 構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交流・協力問題가 정치・군사문제 보다는 先決的, 先次的, 優先的 課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南北關係뿐만 아닙니다. 요즘 東西獨이 상당히 統一을 위해서 큰 진전을 보였는데 동서독간에도 오랜동안 人的交流, 物的交流, 協力이 것이 실천되면서 나중에 政治・軍事問題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政治・軍事問題, 정치・군사문제 하시지만 우리가 조그만 議題도 지금 妥協못하고 있는 것이 남북간의 현실입니다.

政治・軍事問題는 굉장히 複雜한 문제이고 굉장히 敏感한 문제이고 또

連繫性이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초보적인 信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政治·軍事問題를 선결적으로 解決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不可能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이점에 雅量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우리 大統領께서 남북관계 進展에 대해서 여러번 강조를 하시고 國政의 중요한 指標로 세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측에서는 交流·協力問題가 선차적인 문제지만 북측에서는 政治·軍事問題를 다루자고 하니, 최소한도 이결 並行 討議하자. 1 병행 토의하자는 것까지 우리가 귀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受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군사문제라든지 교류·협력문제의 구체적인 內容은 本會談에서 다루고 우리가 두개의 중요한 軸을 의제로 受容해서 다 討議하자는데는 저는 하등 論理的으로나 實質的인 問題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 名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提案을 하신것 같은데 南北高位級會談,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南北 高位當局者會談하고 글자 한자 틀립니다. 근데 저는 이 글자 한자 틀리는 意味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귀측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北(백남준) : 그러니까 지금 명칭문제로 들어가자는 겁니까?

南(廉弘喆) : 아니, 質問만 하고, 질문만 하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지금 효과적인 토의를 위해서 나중에 이거 뭐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고위급이란 말과 고위 당국자란 말 그 글자 하나, 하나가 틀린데 그 뜻은 많이 달라요. 高位當局者라는 것은 사실은 政府代表를



얘기하는 것이고 高位級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에도 고위급이 있을거고 社會團體에서도 고위급이 있을거고 藝術·文化에도 高位級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단체, 체육, 문화, 예술, 언론, 뭐 이런 것을 포함한 高位級인지 아니면 여기서 고위급이라는 것은 當局者를 그러니까 政府代表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걸 하나 묻고싶고, 또 아울러 귀족에서 會談代表 構成이라고 해서 오늘 여기 案을 내 놓았는데 會談代表團은 總理를 단장으로 하여 7名으로 하되 부장·부부장, 우리로서는 長官·次官입니다. 즉 政府代表라는 것을 明示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高位當局者라는 그 名稱을 회피하고 高位級이라고 하는 意圖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北(백남준) : 좋습니다. 가만히 조금 기다리시오. 제가 宋선생한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南(宋漢虎) : 예.

北(백남준) : 아까 이제 廉先生도 얘기했고, 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南北關係를 改善하는데서 선차적인 課題가 信賴構築이다. 아주 옳은 말입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信賴構築을 한다는 것은 不信이 있으니까 不信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바로 그 不信의 根本原因이 어디에 있는가. 對決입니다. 그 對決을 없애야 信賴가 구축되고, 信賴가 構築되고 그 不信이 해소되지 交流가 안돼서, 交流가 안돼서 不信이 해소 안되는게 아닙니다.

그런 意味에서 나는 信賴構築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不信의 요인이 무엇인가. 왜 신뢰가 구축 못되는가, 불신이니까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不信을 解消해야 된다. 옳다.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뭐인가. 불신의 근본요인인 政治的 對決, 軍事的 對決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엄연히 이것은 中核的인 문제이며 동시에 先次的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을 하는데 東西獨 관계를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東西獨 關係를 보면은 상당한 기간 交流를 하다가 이제와서, 이제야 와서 政治·軍事問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評價를 잘못한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東西獨은, 우리는 停戰狀態에 있지마는, 東西獨은 停戰狀態에 있는게 아닙니다. 정전상태 아니다. 그러니까 東西獨은 말하자면 뭐인가 하면 이미 交流問題가 앞설 수 있었다. 이점을, 이점을 망각하고 이점을 排除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쪽에서 東西獨間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은 그건 좀 평가도 잘못하는거고 우리 문제를 갖다가서 억지로 모자를 씌워주는 것과 같은거다. 그건 관계가 다릅니다. 다르다. 뭐 東西獨關係, 東西獨關係 지금와서 뭐 聯邦制다 했는데 나는 聯邦制統一方案을 제기를 했는데, 아 그쪽에서 동서독관계에 상당히 지금 흥미를 가지는것 같은데 우리는 연방제통일방안을 내 놓았는데 그걸 제까다 合意를 했으면 오히려 더 좋을것 같아요. 자꾸 이런 문제를 끌어들이다가 이렇게 하지를 말고.

北(김영철) : 東西獨 關係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선사람이.

北(백남준) : 이런 석상에서 자꾸 꺼내지 말고요 그 다음에 高位當局者, 當局者 하는데 이제 저 무슨 말이나 하니까, 염선생 말씀을 했는데 高位當局者는 政府代表다 정부대표다. 정확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

부대표와 대표사이의 會談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 당국자 회담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뭐인가. 貴側 辭典에도 高位當局者라는 것은 單數概念이지 複數概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合意한 代表團 構成, 總理를 團長으로 하고 軍實權者까지 포함해서 7名으로 구성된 雙方間的 雙務的인 代表團 會談이란 말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名稱이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다 하자면 많이 할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

南(廉弘喆) : 高位級會談이라는데 .....

北(최우진) :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단장이 말씀하시는데.

北(김영철) : 단장들 말하는데 廉先生이 .....

北(최우진) : 아이, 가만있어.

南(廉弘喆) : 질문하는게 아니요 ?

北(최우진) : 무슨, 말씀하는 도중에 질문이요 ?

南(廉弘喆) : 아이, 그러니까 질문하는게 아닙니까 ?

北(최우진) : 점잖치 못하게 말이야.

北(김영철) : 점잖치 못해요. 團長이 말하는데 툭툭하고 말이야.

北(백남준) : 제가 얘기를 한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십시오. 그쪽에서 기여 協力·交流問題를 議題化하지 않으면 合意를 안하겠다. 가만 宋先生님 들어보십시오.

南(宋漢虎) : 예.

北(백남준) : 合意를 안하겠다. 그렇다면 제가 의정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重要한 提案을 내놓겠어요.

南(宋漢虎) :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래도 .....

北(백남준) : 가만 이긴 내가 宋先生 가만보니까 상당히 듬직하고 점잖았으면 좋겠는데, 나 그거 의견있어. 그, 저 이제는 허물없는 사이가 됐으니까 말인데. 말을 동강이 툭툭내지, 자꾸 말씀을 어떻게 빨리하는지 채바퀴 같이 돌아가니까 어떤거는 말한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南(宋漢虎) : 말씀하세요. 다 듣고 있으니까.

北(백남준) : 지금 双方 사이에는 本會談 의정에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해소문제와 별개시켜 交流·協力問題를 넣겠는가 넣지말아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意見이 계속 상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北과 南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한 問題안에 다각적인 交流·協力問題가 포함돼 있기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의정에 바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貴側에서 交流·協力問題를 따로 明記할 것을 계속 主張해 나옴으로써 의정에 대한 合意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本會談을 하루빨리 성사시켜야 할 重大한 책임을 지는 우리들이 의정에 交流·協力問題를 明記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問題를 놓고 귀중한 時間을 무한정 허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交流·協力問題를 의정에 따로 明記하는 것이 불필요한 중복이기는 하지만 貴側의 意見을 고려해서 會談議程을 「北과 南 사이의 政治·軍事的 해결상태를 해소하며 多方面的인 協力和 交流를 實現할데 대하여」로 할데 대한 절충안을 정중히 提議하는 바입니다. 會談議程과 관련한 이 절충안은 民族의 念願 과 요구에 맞게 完화와 平和, 統一의 局面을 하루빨리 열어 나가려는 우리의 진지하고도 성

의있는 立場의 또하나의 뚜렷한 表示로 됩니다. 나는 貴側이 議程과 관련한 우리의 절충안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놓은 …….

南(宋漢虎) : 다시 한번 …….

北(백남준) : 北과 南 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며.

南(宋漢虎) : 해소하며.

北(백남준) : 다방면적인 協力과 交流를 실현할데 대하여

南(宋漢虎) : 交流와.

北(백남준) : 다방면적인 協力과 交流를 실현할데 대하여

南(宋漢虎) : 아, 協力을 먼저 앞세운다 이거지요?

北(백남준) : 예, 協力과 交流를 실현할데 대하여.

南(宋漢虎) : 協力과 交流를 실현할데 대하여.

北(백남준) : 이게 우리 打開策인데 宋先生, 이렇게 합시다. 뭐 金년중에 妥結하자구서 말씀을 하시구, 뭐 해야지. 뭐 자꾸 이렇게 맞서가지구 되겠습니까?

南(宋漢虎) : 議題問題와 관련해서 이제 귀측이 그동안 主張하던 입장을 좀 修正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남북사이에, 남북사이에 당면한 政治的·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해야 된다 하고 그동안 主張을 해 왔는데 오늘은 이제 交流와 協力問題에 관해서 같이 竝行을 해서 明記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北(백남준) : 네.

南(宋漢虎) :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아까도 제가 좀 이야기 했지마는 일단은 交流·協力문제를 議題에 竝行 表記하는데 일단 同意를

한겁니다.

北(백남준) :했습니다.

南(宋漢虎) :네, 同意했는데 다만 우리 差異가 나는 것은 이 表記順序에 있어서 어느 것을 앞뒤에 놓느냐, 가령 軍事的, 政治的 對決狀態 解消하고 多角的인 交流·協力중에서 어느 것을 議題 앞에 表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立場의 차이가 나는것 같어요. 우리는 다각적인 交流·協力問題를 議題 앞部分에 表記하자 그리고, 귀측은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를 앞部分에 表記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양쪽에 意見差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와 관련해서 또 이제 하다보면 어느 것이 앞에 놓여야 된다. 어느 것이 뒤에 表記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간에 異見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自己들 나름대로 雙方이 다같이 자기측 立場의 정당성을 主張하고 아마 그렇게 될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意見を 좀처럼 좁히기가 힘드리라곤 나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北(백남준) :네, 말씀하시오.

南(宋漢虎) :여기에서 우리 백선생 말이지요. 이렇게 앞에 이 政治的·軍事的 對決狀態 解消문제 놓고 뒤에다가 다방면적인 協力和 交流를 실현할데,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表記된 順序가 總理會談을 할때에서의 討議順序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면, 다시말해서 여기 表記順序에 따라서 반드시 總理會談에서 總理들이 討議를 해야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順序를 바꾸어서 討議도 할 수 있고 또 一括的으로도 討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의 백선생 立場을 좀 알려주세요.

北(백남준) :대답하겠습니다. 이제 宋선생이 물었으니까, 진짜 정말로 宋선

생이 대화꾼이야.

南(宋漢虎) : 왜요?

北(백남준) : 왜, 대화꾼인가……

南(宋漢虎) : 난 뭐 대화도 별로 해보지도 안했는데 뭘.

北(백남준) :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저 70년대 赤十字會談때 諮問委員으로 좀 따라 다녔지, 그 다음에 구호물자 가져갈때 한번 갔다와서 나는 대화꾼이 아니란 말이야. 아님데, 그런데 이거 宋先生이 이거 제기를 하는거, 알면서 提起를 한단 말이야, 包括的인 單一議題에 定立해 놓은 議程은 그거는 討議順序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내 왜 宋선생이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討議順序가 아니고……

南(宋漢虎) : 討議順序가 아니다?

北(백남준) : 네. 아닙니다.

南(宋漢虎) : 그러면은 이렇게 多角的이라든가, 多方面的이라는 뜻에는 뭐 별 큰 차이는 없지요?

北(백남준) : 같은 말입니다.

南(宋漢虎) : 같은 말이지요?

北(백남준) : 같은 말입니다. 인정합니다.

南(宋漢虎) : 그럼 제가 이렇게 提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北(백남준) : 네.

南(宋漢虎) : 議題問題와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거 앞에 어느것을 表記를 하자. 이러다 보면은 한정이 없어요. 뭐 귀측도 나름대로 論理가 있고 우리도 우리 주장의 正當性을 계속해서 떠나갈려면은 떠나갈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來年에 總理會談이 實現되기가 힘

들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議題表記를 서로 편리한대로表記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다각적인 교류·협력과 「南北間에 다각적인 交流協力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하는 문제」 이렇게 하고 귀측은 오늘 이야기한대로 하고 다만 다각적인거는 마찬가지로 귀측은 다방면적인 것으로 써도 좋고 우리는 다각적인 걸로 하고.

北(백남준) : 네, 그러니까.

南(宋漢虎) : 편리한대로.

北(백남준) : 北과 南사이의 政治·軍事的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그쪽에서는 다각적인 교류·협력 ……

南(宋漢虎) : 남북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간에 다각적인 교류·협력과 政治·軍事的 대결상태 해소문제 이런 식으로 하고.

北(백남준) : 그리고 우리는 이제 提案한대로.

南(宋漢虎) : 네, 네 그렇게.

北(백남준) : 그러니까 좌우간 宋선생은 그저 요지부동이구만.

南(宋漢虎) : 아니 그렇게 상호편리한대로 하자 이거지.

北(백남준) : 아니 세상에, 세상에 이거 남을 웃기고, 창피스럽게.

南(宋漢虎) : 웃기기는 왜 웃겨.

北(백남준) : 아니 雙方이 모여 앉아서 議題 ……

南(宋漢虎) : 아니 이걸 정말 진지하게 내가 提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앉은 자리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건 아니고 내가 볼때 귀측하고 우리하고가 議題問題와 관련해서 接近을 시킬려면은, 이걸 合意를 볼려면은 그런 식으로 밖에 방법이 없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랜 경험



에 비추어 봤을때 ……

北(백남준) : 대화꾼이니까.

南(宋漢虎) : 아니 오랜 經驗에 비추어 보았을때 그렇게 안된다.

北(백남준) : 보십시오. 이거 정말, 정말 실망스럽단 말이야.

원래야 交流·協力문제가 우리 政治·軍事的 問題 해결안에서, 그쪽에서  
전번에 얘기했지 지금 뭐인가 하면 체육교류, 무슨 문화교류, 무슨  
기술교류, 경제교류 뭐 다 있는데 이런 또 각 分野에서 協議機構들이  
생겨가지구 하는데 우리 이거 호상 이런 우리 本會談에서는 그걸 支持  
해주고, 支援해주고 협조를 하고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여기에서 討議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동감이 아닙니  
까? 우리 이 本會談의 위치로 볼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해소할데 대하여로 의제를 하나로  
해도 그걸 다한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걸 올려 놓지 않으면 안되겠  
다고 그래서, 아니 宋先生 나는 그래도 이거 年內에 이걸 결속하자고  
했으니까 오늘은 宋漢虎 首席代表 先生이 단단한 보따리를 가지고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어느 하나 변화가 없고, 그래서 자 이  
거 명칭을 내놓으니까 조금 있다 討論하자. 이걸 또 내놓으니까 이거  
그 다음에 뭐인가 討議順次는 아니지? 아니다. 그러면 편리한대로 文案을  
또 정리를 하자. 또 先後次를 놓고 딱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우리 지  
금 宋先生! 우리 이제는 구면이 됐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이야기냐니  
까 우리가 어차피 우리나라가 統一될 것 아닙니까? 그때에 가서는 歷史  
에 이거 宋漢虎라고 하는 분과 이거 백남준이라고 하는 분이 歷史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데서 그래도 寄與를 했다. 이런 소리를 듣게 우

리 互相 이견 이제 잊지않게 이렇게 될건데,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무슨 구차스럽게 또 議程을 정하는데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따로 하고 우리는 우리쪽 나름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南(宋漢虎): 그러면 우리한테 同意하세요.

그렇게 따로 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다 우리한테 同意하라고.

北(백남준): 다 우리한테 同意하라 다 우리한테 동의하라 이건데, 더러 좀 讓步하시라우요.

南(宋漢虎): 아 우리 讓步 많이 했지요. 지난번에 …….

北(백남준): 形式 하나 讓步한 것 …….

南(宋漢虎): 아니 그렇지도 않다고.

北(백남준): 아니 형식 하나밖에 양보한게 없다고.

南(宋漢虎): 아니 내용 자체도 양보했지요.

北(최우진): 송선생 제가 간단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北(백남준): 거 산수를 잘 모르누만.

北(최우진): 오늘 아까 會談 始作할 때에도 이제 80年代도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豫備會談을 結束을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提議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사실 그와 같은 立場과 姿勢를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會談名稱도 아주 근본적인 양보, 최대의 양보를 했습니다. 會談名稱 자체도 그런데, 이견 왜 내가 議題 討議하는데 會談名稱을 먼저 꺼내 놓는가, 아까 염홍철선생 이야기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내놓은 高位級會談이라는게 불만스러운 것같은 質問을 하는데 그래서 會談名稱 다시 대답주기로 이렇게 하고 討議하도록 하고, 그

러나 내가 여기서 느끼는 인상은 무엇인가, 會談名稱問題 討議, 오늘 議題問題 討議, 여기서 論議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귀측에서 좀 연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妥結策을 강구하기로 한 이와같은 자세, 姿勢라고 하면 섭섭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연구를 하는게 어떻겠는가, 그런걸 우선적으로 強調합니다. 그러면서 會談名稱을 이야기 갖기로 아까 이야기 했는데 거기 무슨 高位級會談 애매하다. 애매한 것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高位級이 어느級이 高位級인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럼 當局이라는게 학교當局도 있고, 병원當局도 있고 뭐 당국은 똑똑합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트집은 부리지 말구요, 우선 名稱問題 討議에 들어가기 전에 똑똑하게 그問題 이야기 해드립니다. 그럼 名稱을 討議한 다음에 다시 立場을 밝히겠습니다.

北(백남준) : 의정문제, 이거 우리 세상에 대고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야. 議題도 하나 包括單一議題로 하면서 그안에 또 문안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하는 거 그래서 그건 宋漢虎先生이 이 자리에서 同意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서 研究해보면 ……

南(宋漢虎) :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分명한 입장입니다.

北(백남준) : 가서 研究해봐요.

南(宋漢虎) : 난 오히려 우리 白先生께서 좀 가서 研究하시면 어떨까 …

北(최우진) : 그런데 연구하실 때 이걸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南北共同聲明 있지 않습니까. 南北共同聲明에, 아까 南北共同聲明 말씀하셨는데. 큰 첫째는 三大原則 아십니까? 그럼 큰 두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크게 強調된 것이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와 관련된 이와 같은 내용이 꼭 기재돼 있습니다. 交流와 協力問題는 그 다음입니다. 그

리기 때문에 南北共同聲明問題에 대해 아까 옳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共同聲明의 原則을 놓고 봐도 이 對決狀態 解消를 앞에 놓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會談이 마련된 과정에서 總理들 사이에 편지 오간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오가고 하는 問題에 있어서도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가 대단히 強調되고 특히 내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研究하실 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제 우리 宋수석 대표선생이 1차 豫備會談때 議題, 세부의제 제기할 때, 첫째는 互相 誹謗·中傷 中止하는 問題입니다. 이게 물론, 이 誹謗·中傷 中止 問題는 政治的 對決狀態 解消하는 부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첫째 제기하시고 말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에다 交流協力問題를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성명이나 總理 사이에 편지 오가고 하는 문제나, 귀측에서 세부의제 내놓을 때 첫째가 그런 문제, 세번째 交流協力, 이렇게 놓은 것을 봐도 우리가 이 政治·軍事對決狀態 解消問題를 앞에 놓고 交流協力問題 뒤에 놓는게, 우리 뒤에 갖다 붙이기로 한 것만 해도 대단한 양보입니다. 사실은 이거 없어야 하는건데. 그러니까 이런걸 研究 좀 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北(백남준) : 議題를, 政治軍事 對決狀態問題하고 交流協力問題 있지 않습니까? 이 定立은 南北間에 이미 그것이 돼야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崔대표도 얘기했지만 宋先生 전번 4차會談때도 말씀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7.4 南北共同聲明의 첫째 조항이 뭐니까? 3大原則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라는 問題입니다. 그 다음에 다방면적 交流 實現 問題고, 이렇게 돼 있어요. 南北間에 合意된 기본 統一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른 건 다 그만 두더라도 이제 우리 崔대표도 애길 했는데 전번에 그쪽에서 세부의제 내놓았을 때에도 誹謗·中傷 中止問題, 不干涉문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交流協力問題 세번째 조항에 놓았고, 이렇게 해 오던 건데, 그걸 政治 軍事라는 걸 앞 대가리에 놓는다 그래서 이제 와서 또 제 나름대로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宿題로 남깁시다.

南(宋漢虎): 아, 그래요?

北(백남준): 예.

南(宋漢虎): 숙제로 남기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한가지 아까 귀측에서 修正 제의한 議題를 보면 그동안에는 남북 사이에 당면한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는 남과 북 사이의 政治的·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하며 다방면적……

北(백남준): 「당면한」이라는 걸 왜 뺐는가? 집어 뺐지. 왜 그런가. 우리는 사실상 內外的·政治的·軍事的 문제, 우리가 「당면한」문제로 제기를 내놓으면 사실 아까 廉선생도 애길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은 반됩니다. 銃을 互相 놓고서, 권총을 서로 놓고서 악수를 해야지, 권총을 권채로 악수가 됩니까? 저 分界線에 遮斷도 해 놔는데 어떻게 도대체 오간단 말입니까? 안돼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풀자. 統一問題 전반에 마지막에 가서 統一憲法을 採擇하고, 統一國家를 세상에 대고 만세를 부르는 그런 문제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우선 이 中核的인 문제, 「當面한」 제일 걸림돌로 돼 있는 이 문제를 풀자, 그래서 제기를 했던 건데 그쪽에서 무엇때문에 總理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협소하게 政治·軍事問題 하겠느냐, 包括的으로 다 토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건 또 宋先生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또 상당한 정도로 北南關係問題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게 토론하시자고 하는 意向이 있는 것 같고, 그건 우리는 또 本來부터 反對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짚어 내어버리자는 겁니다.

南(宋漢虎) : 지난번 11월 16일자 우리 便紙에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 이렇게 「당면한」, 이래가지고 南北間에 當面한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 데 대하여 하고 이거하고 差異가 나는 겁니까?

北(백남준) : 差異가 나지요.

南(宋漢虎) : 어떻게?

北(백남준) : 아, 「當面한」거 하지 말고, 우리가 왜 고것만 하겠느냐. 우리는 글썽 고것만 하기로 「당면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포괄적으로 좀 討論하자, 本會談 代表團이 마련돼 가지구서.

南(宋漢虎) :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南(金保鉉) : 우리가 하려는 것은 南北關係에서 提起되는 懸案問題를 包括적으로 討議하자는 것입니다.

北(백남준) : 글썽, 懸案問題를 討議하자는 거라니까.

南(金保鉉) : 당초에 包括的 平和保障方案을 내면서 提起한 그것과 「當面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는 엄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貴側에서 「當面한」字를 除去했다는 意味는 뭐냐. 全體를 意味하는 겁니까?

北(유성철) : 제가 좀 이야기를 합시다.

北(백남준) : 그럼 붙입니다. 붙여요.

南(金保鉉) : 分明히 概念整理를 좀 하고…….

北(유성철) : 내, 거, 좀 이 얘기를 할라고 그래요.

어찌된거나 하면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 이렇게 했지요? 그렇게 提起를 했지요? 거기 「當面한」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쪽의 이때까지 主張이 그, 이자, 團長同志도 말씀하셨지만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 요렇게 하고 「當面한」表現을 쓰지 않은 것도 우리가 考慮를 했고 또 우리가 그쪽에서 지금 뭐 總理들이 團長으로 해서 政治·軍事實權者들이 모이면 그 分野에 提起되는 問題들을 包括的으로 討論할 수 있게 그쪽의 의견도 考慮를 해서 幅을 넓혀서…….

南(金保鉉) : 좋습니다. 우리가 무슨 意味였느냐 하면은…….

北(백남준) : 幅을 넓혀도 마찬가지로…….

南(金保鉉) :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細部議題를 6個項으로 提示를 했습니다. 그런데 貴側에서 이걸 包括的 單一議題로 자꾸 해야된다고만 主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總理會談을 빨리…….

北(백남준) : 자, 이거, 참…….

南(宋漢虎) : 그만해, 그만해, 거기에 맞춰서 내 이야기 할게.

그러면 白先生이 말이죠, 우리 白先生께서 아까 그 「當面한」. 거를 넣자고 하셨으니까 다시 넣지요 뭐.

北(백남준) : 넣자구요? 그건 또 무슨…….

南(宋漢虎) : 南北間에 當面한 政治·軍事的 對決상태를 解消하며…….

北(백남준) : 아니…….

南(宋漢虎) : 아 그러잖았어요? 그러잖았어?

北(백남준) : 아니, 3차때 그쪽에서 議程에다 뭐인가 하면 北南 交流·協力 實施……. 實施와 아, 무슨 軍事·政治的 對決狀態 解消問題 해서 그

거 계속 고집을 하고 平行線, 나가서는 이게 공연히 시간과 精力이나 소비를 했지, 本會談 誕生을 이거 無限定 遲滯시킬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걸 尊重해서 했는데 .....

南(宋漢虎) : 아, 알았어,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지금 南北, 雙方間에 다각적인 交流·協力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 이렇게 됐습니다. 貴側은 이제 .....

北(백남준) : 우리는 또 北南,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와 .....

南(宋漢虎) : 解消하며 .....

北(백남준) : 多方面的인 協力..... 저, 協力·交流實施問題.

南(宋漢虎) : 예, 알았습니다.

北(백남준) : 그래서, 이걸 宿題로 남깁시다.

南(宋漢虎) : 예, 숙제로 남기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名稱問題와 關聯해서는 내가 나중에 答辯을 드린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그 示意書, 貴側에 보면은 代表團構成問題는 總理를 團長으로 해서 7名으로 하되, 部長·副部長級으로 構成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만, 代表團에는 軍總參謀長級을 비롯해서 軍實權者 2名을 包含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 貴側이 提案한 이 南北高位級會談에도 團長은 總理가 되는거고 거기에 構成員 代表는 部長 또는 副部長級이 되는거죠?

北(백남준) : 그렇죠. 예.

南(宋漢虎) : 예, 예, 알았습니다.

北(백남준) : 똑같은 말 基調發言에서 말을 했습니다.

南(宋漢虎) :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貴側의 그런 거 提案에 대해서 우리가 同意를 합니다. 그래서.



北(백남준) : 이거 …….

南(宋漢虎) : 다만 우리는 南北, 貴側은 …….

北(백남준) : 그럼 아까 내가 처음에 했을 때 대끄덕 …….

南(宋漢虎) : 表記하는데 있어서 …….

北(백남준) : 『여보 白先生, 그렇게 합시다』할 노릇이지, 무슨.

南(宋漢虎) : 貴側은 北南高位級會談, 우리는 南北高位級會談.

北(백남준) :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南(宋漢虎) : 서로 便利한대로.

北(백남준) : 아주, 뭐인가 하면 …….

南(宋漢虎) : 그럼 名稱問題는 이제 合意가 되었습니다. 合意가 되고 의제  
는 그쪽에서 이제 좀 더 研究를 하시고 …….

北(백남준) : 그쪽에서 그 順序를 제 나름대로 쓰자 하는 問題가 있는데  
에, 그 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가서 좌우간 研究를 하  
십시오. 研究를 해 가지고 그저 宿題로 남깁시다.

南(宋漢虎) : 다만 이제 남은 거는 軍代表를 이제 貴側도 이제 明示를 했  
어요. 實權者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보면은 軍總參謀長級을 비롯해서 軍實  
權者 2名,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동안에 막연하던 것인데 軍實權者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明確하게 됐고, 다만 이제 두사람이나 한사람이나 하  
는 것이 이제 差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사람, 오늘 基調發言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한사람이면 充分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한사람  
으로 하지?

北(백남준) : 宋先生, 보십시오. 이 軍事的 對決問題가 내 생각컨대는 이  
게 매우 저 뒤틀리고 하나까 지금 對決에서 이제 重要的 자리를 차지한  
다 뒤틀이 크다. 同時에 또 우리나라의 條件에서는 말입니다 그게 매우 어  
렵고 또 複雜한 問題다. 다른 이런 分斷國, 저, 分斷國家라든가 나라들 사  
이의 軍事問題에 比해서 複雜한 問題가 있다. 그건 여기서 내 다시 說  
明을 안하겠습니다. 우리 무슨 北과 南의 軍隊들만 對峙해 있는 것이 아  
니니까 複雜하지요. 이제 지금 그게 안고 있는 과제가 幅이 크고 複雜  
하고 이런데다가 또 우리, 뭐인가 이걸 풀자고 하면은 좀 能率的으로  
하고 時間的으로 즉 뭐냐니까 이렇게 따라 세우고 이렇게 하자면 적어  
도 두사람은 있어야 돼요. 두사람은 있어야지 그거, 하나갖고 힘들단 말  
예요. 둘로 하자.

南(宋漢虎) : 아, 그래……

北(백남준) :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하면 우리는 總參謀長級 그쪽으로 말  
하면 參謀總長級을 參加시키는 條件에서 軍實權者를 두명으로 하자. 그거  
래도 하나쯤. 그렇게 主動的으로 하나 거 좀 제안을 하시구래.

南(宋漢虎) : 나는 事實 저, 한명이면 充分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

北(백남준) : 두명으로 하자요, 두명으로……

南(宋漢虎) : 거, 왜, 두명을, 한 사람이면 되지. 우리도 여러가지 代表,  
各 分野, 政治·經濟·社會·文化 뭐 이런 代表들이 많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軍代表 그중에 하나 들어가는거지. 充分해요.

北(백남준) : 나는 생각하건데 요먼저 宋先生이 實務節次問題 定立해서  
내놓으면서 우리 本會談의 테두리 안에서 總理 單獨會談도 할 수 있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오늘 거기에다가 部門別 會談도 할 수 있다.

그걸 또 添加를 했습니다. 이제 研究를 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軍實權者 들 參加시키자 그거만 明白히 밝히고 그래야지 이거래도 하나 그럼 宋先生이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선뜻하게 主動的으로 좀 한번 同意를 해 보시구래.

南(宋漢虎) : 우린, 한명이면 充分하다고 ……

北(백남준) : 난, 솔직히 말하면 오늘 그와 關聯된 내 妥結案을 못가지고 왔어요.

南(宋漢虎) :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妥結案을 못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도 …….

北(백남준) : 또 研究를 하라구요?

南(宋漢虎) : 다 서로 研究를 해서 우리 또 우리 오늘 거기에 대한 立場을 밝혔으니까, 우리 白先生이 가서 한번 …….

北(김영철) :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南(宋漢虎) : 뭘 또 이야기할 게 있어요.

北(김영철) : 아니, 軍代表問題니까 이거 나와 關聯된 문제란 말입니다.

南(宋漢虎) : 뭐, 뭘은 다하시던데 뭘 그래요. 허허.

北(김영철) : 아니, 좀 들어보세요. 軍代表問題가 論議되는데, 軍代表問題가 이 事實上 간단한 實務的 問題가 아닙니다. 會談名稱問題가 會談의 種子, 얼굴에 관한 問題이고, 會談議題問題가 會談內容에 관한 問題라면, 이 會談代表에 관한 問題는 會談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主人公들에 관한 문제예요. 사람들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단순한 實務的 問題가 아닙니다. 이런 意味에서 軍參謀總長이 될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前

提로 해서 軍代表의 數를 1명으로 制限하자고 그쪽의 主張에는 어딘지 모르게 問題點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問題點이 있는가 내 한번 說明해 드리지요. 왜 問題點이 있다고 보느냐 여러가지 問題를 說明하…….

南(朴鍾權) : 짚막짚막하게 이야기 하세요.

北(김영철) : 딱 세가지만 이야기를 하…….

南(朴鍾權) : 너무 많이 이야기 하지 말고 그쪽의 立場만.

北(김영철) : 朴鍾權先生이, 우리 軍隊끼리 通할 수 있지요.

南(朴鍾權) : 김영철代表, 그쪽의 立場만 이야기를 하세요.

北(김영철) : 그래서 왜 問題點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北(백남준) : 원래 보라요. 이렇게 둘을 같이 마주 앉아놔야 돼요.

北(김영철) : 왜 問題點이 있다고 보느냐 그쪽의 主張대로 한다면 어딘지 모르게 앞으로 하자하는 本會談에서 이 軍事的 問題 討議,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를 그쪽에서 어딘지 모르게 弱화시키거나 회색시키지는 그런 좋지못한 저의가 깔려 있지 않은가?

南(宋漢虎) : 아니, 그렇게…….

北(김영철) :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가만있어, 分明히 하지만,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南(朴鍾權) : 내가 대답할께.

北(김영철) : 아니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상당히 성급하신데, 우리가 하자하는 會談은 分明히 北南사이에 存在하는 政治的 對決狀態라는 하나의 障礙物과 함께 軍事的 對決狀態라는 다른 하나의 큰 障礙物을 爆破해 버리자는 그런 會談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會談때도 말했지만 이 두개 對象物을 없애지 않으면은 信義를 도모할 수 없다. 오해와 不信을 가실 수 없다. 交流·協力問題도 제대로 할 수 없다. 結局은 統一問題 自體도 제대로 다룰 수 없다. 이 두가지 對決狀態를 解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하게 될 會談에서는 이 軍事的 問題 討議,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가 相當한 比重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比重을 安받침하는 意味에서 代表가 參加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勿論 우리는 初期에 적어도 50% 이상은 軍代表가 차지한다 이렇게 했지요. 그러나 다른 事情을 考慮해서 最小限 2명이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쪽에는 내가 알건대는 3軍種으로 分離된 지금 參謀總長職制를 지금 維持하고 있는 形便에서 우리 2명하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는 3명하겠소 이렇게 呼應해 나올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게 어떤 問題點이 있는가? 틀림없이 軍事的 問題 討議를 弱화시키려는 그런 意圖가 있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지요. 여기에 내 問題點이 곧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뭐이 問題點이 있는가? 이 北南사이에 存在하는 軍事的 對決狀態의 特性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軍代表 1명이라는 건 우리 軍事的 對決狀態가 어떠한 對決狀態입니까, 이제 代表분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北南關係問題에서 제일 中核的이고 中心고리 問題다.

이제 방금 葉鴻철先生도 그랬지요. 政治·軍事問題는 굉장히 複雜한 問題다. 認定했습니다. 지난번에 中核的인 問題인 것에 틀림없다. 重要性의 見地에서는 가장 中核的이고 中心고리 問題다. 풀어야 할 順次로 볼 때에는 最優先的으로 處理해야 할 問題다. 그 內容的인 問題를 내놓고 보면

굉장히, 이자 그쪽에서 표현을 하면 複雜하다. 굉장히 緊張한 問題다. 尖銳한 問題다. 世上사람들에게 地圖를 펼쳐 놓고 물어보시요.

世界에서 緊張狀態가 제일 緊張한 게 어딘가? 누구나 異口同聲으로 朝鮮半島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軍事評論家들이 글을 써요. 어떤 글을 썼는가?

第3次 世界大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朝鮮땅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核戰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朝鮮半島에서 시작되는 씨나리오를 쓰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슴아픈 일이란 말입니다.

또 얼마나 굉장히 複雜한가?

地上에서 對決狀態가 없습니까? 空中에서 對決狀態가 없습니까? 바다에서 對決狀態가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立體的인 空間을 띄고 複雜狀態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이 外勢와 연관된 복잡상태가 있다. 그러면 이런 軍事的 對決狀態를 우리가 認定을 한다면 그 對決狀態를 다룰 수 있게 代表를 일정한 比重을 두자. 다른 意圖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좋다.

이 중잇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俗談이 있지 않습니까? 特히 現代의 軍事問題는 혼자가 다룰 問題가 아니다. 옛날 같으면 개별적인 將軍들이 말을 타고 칼을 휘둘러서 전반적인 問題를…… 그런, 그런 때가 지금 아냐.

個別的인 戰術集團이, 師團을 하나 놓고 봅시다. 朴鍾權先生이 軍隊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師團도 師團長이 옛날처럼 혼자서 問題를 處理

하지 못하기 때문에 副師團長이 있습니다. 그리고 參謀長이 있단 말이에요. 參謀長 일을 받치기 위해서 參謀가 있습니다. 師團長이나 副師團長이 우리로 말하면 代表나 같겠다. 參謀는 무언가? 隨員과 같다. 이런 意味에서도 잘 다루자면 그래도 軍事的 代表가 一定한 比重이 있어야 되겠다. 지난 時期 三勳先生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隨員關係 討論할적에 北南關係 高位級會談인데 한명이라도 더 參加시키면 좋지 않은가? 分明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 隨員을 한명 더 參加시키겠다는 정도에서 代表하나 더 參加시키자는게 뭐이 나쁘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내 두번째 問題點이 있다는 겁니다.

세번째로 어떤 問題點이 있는가?

南(朴鍾權): 아니, 간단히 말씀하세요.

北(김영철): 말씀 왜 끊어요. 性急하면 못써요. 作戰이 꺼져요. 예, 세번째는 어떤 問題點이 있는가? 우리 온 民族의 決意와 기대에 호응하는 의미에서도 한명이라는게 問題點이 있다. 지금 온 民族이 바라는게 뭐인가? 統一을 바라니까 하루 빨리 軍事的 對決狀態가 없어졌으면, 政治的 對決狀態가 없어졌으면, 이게 정말 다 누구든지 바라는 겁니다. 이 分裂의 基本禍根이 뭐니까? 政治的·軍事的 對決狀態가 基本禍根이라는 겁니다. 이 分裂이라는 물건짜이 우리나라, 우리 民族을 정말 苦痛스럽게 만드는 물건짜이 아닙니까?

이 分裂이 어떤 물건짜입니까? 우리 民族을 모두 事大主義로 몰고가는 그런 물건짜이란 말입니다. '分裂이, 이 分裂이 솔직히 말해서 미국사람들이 分裂해서 統治하려는 그러한 수법이 낳은 물건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分裂을 가시자면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여야 합니다.

은 民族이 이것을 바란다. 民族의 期待를 우리가 감안했다면 은 民族이 그것을 절규하고 바란다면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意味에서도 그래도 軍事的 對決狀態의 解消問題는 軍代表를 좀 一定한 比重으로 參加하자, 내 생각이, 이런 意味에서 우리가 그쪽에서 한명이 參加하는 主張에는 어딘지 모르게 좀 不足點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異意가 없다면 두명으로 하자요. 근데, 아니 끝을 맺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團長同志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會議名稱을 折衷案 내놨어요. 會談場所도 서울 讓步했다. 議題도 折衷했다. 그러문 무슨 會談成立에 하나라도 讓步하는게 있어야 呼應이 있는게지 아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고 받는게 없단 말이요. 어떻습니까? 軍代表 다른 異意가 없으면 두명으로 하자요.

北(백남준) : 박종권先生, 朴先生, 내 말씀하는데 들 하자하는 말씀하세요.

南(朴鍾權) :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백남준代表先生께 참 몰타會談을 비롯해 가지고 國際感覺에도 대단히 밝으시고 東歐圈이라든지 그 東西, 東西獨逸問題 그 다음에 이러한 問題들이 信賴構築을 中心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감명적으로 받고 敬意까지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활성화시킨 會談의 역할에 대해서도 대단히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政治·軍事問題, 대단히 中核的인 問題라고 강조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韓半島의 중요한 問題가 政治的인 문제요, 軍事的인 問題가 가장 中核的인 問題라고 말씀한거와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認定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論理性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金대표가 했는데, 先次的인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論理에 대해서는 잘못돼 있다고 보는 것입  
니다.

아까 信賴構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거와 같이 이 南北韓에 걸  
려있는 이 對決의 問題, 軍事的 問題, 이것은 對決關係에서 온 產物입니다.

對決關係에서 온 이 산물이 우리 南北統一問題의 걸림돌이라 해서 이  
것을 들어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걸림돌이나, 그런 可視的인 것이 아  
닙니다. 그것은 40여년동안 이 쌓아온 不信과 이런 敵對意識속에 쌓아  
온 그러한 걸림돌이요, 그러한 障礙要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障礙  
가, 信賴를 맞이하는 그러한 단계가 없이는 그것이 바로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過程에서 볼 때 우리가 다각적인 交流를 통해서 信賴를 하나  
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이러한 問題야말로 그것이 先次的인 것이라고 우  
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해차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金대표가 軍事的인 問題를 解決해야 통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던  
그러한 觀點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40여년동안에 쌓아온 그 不信이  
이루어진 그러한 敵對關係에서 이루어진 產物이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  
자해서 없어지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런 民族感情을 우리가 풀어서 매듭을 풀어나갈 때에  
실타래가 풀려나가는 것이지, 그런 意味에서 우리가 交流를 앞세워서 나  
가자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交流와 政治問題를 같이 並行해 놓고 妥結을 짓자는 이  
러한 受容에 대해서 대단히 발전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아까 軍事的인 問題, 하나냐 둘이냐, 약점이 있다, 問題가 있다고 말씀하

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北間에 軍組織上의 差異에서 오는 見解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軍事問題를 등한시 한다든지 이것을 後次的인 問題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貴側에서는 政務院이라는 것과 人民武力部라는 양분된 체제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軍事的인 比重이 대단히 인민무력부에 큰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貴側은 軍組織이 단일 統合軍制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總理가 그러한 16개 部와 13개 處로해서 하나의 國防部가 하나의 軍에 들어서 같이 平行선상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總理를 團長으로 해서 실질대표가 모일때는 國政全般에 관한 고루고루에 그러한 均衡있는 參與를 갖기 위해서 하나를 한 것이지 그것을 다른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貴側이 갖고 있는 立場과 우리가 갖고 있는 政府組織의 立場, 이것이 相異하기 때문에 그러한 큰 물꼬를 트는 意味에서의 자리는 한사람이면 족한 것이고 그 위에 나가서 發生하는 問題는 또 多數가 參與를 해서 問題를 풀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總理를 단장으로 한 첫, 그러한 물꼬를 틀 큰 會談을 여는데 있어서는 軍代表로서는 한사람이 족하다.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한사람을 내놓고 나간다.

北(백남준) : 朴先生, 둘이라고 나올줄 알았는데 또 한사람. (웃음)

南(朴鍾權) : 그래서 이 問題는 研究課題로 남겨 놓고.

北(백남준) : 이제 朴鍾權先生 말씀하셨는데, 그저 우리는 이 軍事的 問題가 이게 말하자면 그 不信 解消하는데서 先次的으로 풀어야 될 問題다.

그 견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國際的으로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얽힌 얘기가 많지요. 紛爭問題도 많고 그렇지마는 貴側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지금 軍縮이 세계적인 趨勢란 말입니다. 그건 그만큼 軍事問題가 아주 中核的인 問題고 그가 차지하는 그런 그 대결에서의 말하자면 자리가 대단히 重要하다는걸 말하는데, 그 問題에 대한 論爭을, 무슨 論爭을 여기서 길게 할려고 안하고 나는 宋先生, 다른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軍代表 그거는 參謀總長級을 包含해서 軍實權者 2名, 이거래도 낙착을 하자요? 또 이걸 과제로 남기겠습니까?

南(宋漢虎): 그 問題는 아까도 우리 朴代表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로서는 사실상 한사람이면 充分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總理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北(백남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또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讓步를 하지요.

이것도 내 讓步를 한 다음에 또 꼬리를 달지 마시요.

南(宋漢虎): 제가 언제 꼬리를 달았어요?

北(백남준): 軍總參謀長級을 參加시키는 條件에서 雙方이 편리한 대로 軍代表를 구성한다.

南(宋漢虎): 편리한 대로?

北(백남준): 예.

南(宋漢虎):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라면 그러니까 貴側은…….

北(백남준): 그쪽에서는 하나 할려면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둘로 하면 둘로 하구.

南(宋漢虎) : 셋도 하시겠다 이거예요?

北(백남준) : 예, 그쪽에서 셋도 할려면 하시구, 넷할려면 하시구!

南(宋漢虎) : 아니, 貴側에서는 셋을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둘을  
한다든가 혹은 하나 한다든가 그 둘중에 그…….

北(백남준) : 어쨌든 그건 관계하지 말구, 거저 뭐인가 하면, 總參謀長級  
을 參加시키는 條件에서 雙方이 편리한대로 軍實權者를 構成한다. 代表團  
을 構成한다.

南(宋漢虎) : 좋습니다.

北(백남준) : 그렇게 합시다.

南(宋漢虎) : 편리한대로 하는 거지요?

北(백남준) : 예. 편리한대로 그건 申意됐습니다.

南(宋漢虎) : 그 다음에 한가지 물을 것 있는데, 貴側에서는 總參謀長級  
그렇게 돼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參謀總長級, 우리는 사실상 參謀總長  
級이면 大將의 계급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겁니다.

北(백남준) : 아니.

南(宋漢虎) : 아니 그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貴側이 거기에 相應한 總  
參謀長級이니까.

北(백남준) : 아마, 그거는. (웃음)

그리구요, 그 다음에 隨員問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뭐 아  
까 宋先生님이 30명내외로 하자.

南(宋漢虎) : 그건 아까 基調發言에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北(백남준) : 아, 그래서 30명 내외로 하는데, 30명 내외라고 하는 거  
야 30명 앞이 될 수도 있고 뒤에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30

명 내외라는게 . 그런데 그것도 뭐 세상에다 대고 우습게 그렇게 하지  
말구, 아까 우리 基調發言에서 말했는데 同數로 하자, 그쪽에서 몇명 되  
겠습니까?

南(宋漢虎) :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지만은 4  
~5명 정도의 伸縮性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

北(백남준) : 딱 찍어 말씀하랴요 .

南(宋漢虎) : 그럼 35명으로 하자, 그럼 .

北(백남준) : 35명이라고 하는거야 四捨五入하면 저 뭐인가 하면 40 으  
로 올라가는데 무슨? (장내 웃음)

정말 宋先生님 완고하구만! (웃음)

南(宋漢虎) : 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4~5명정도의 伸  
縮性을 가지자 .

北(백남준) : 저, 뭐인가 하면, 서른 셋으로 하자 .

南(宋漢虎) : 서른다섯 합시다 .

北(백남준) : 아니, 서른다섯이면 四捨五入하면 사십이야, 그러니까 그 아래  
로 잡으랴요 .

南(宋漢虎) : 아, 참! 좋습니다. 서른셋으로 하고, 그때 서로 連絡官 끼리  
서로 協議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또 안된다 하게 되면은 그때 또  
事情을 보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때에는……

北(백남준) : 그때는 總理들한테 맡겨버리고 우린 그만 두자우 . 뭐 그것  
까지 따라 다니며 責任지겠소, 뭐 .

南(宋漢虎) : 예 . 좋습니다. 33명 .

北(백남준) : 그리고 이제 나머지 問題들 있는데, 우리 아까 合意書 草案

에서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宋先生이 提起를 한거, 順次라든지 表現이라든지 다 참작을 해서 合意書 草案을 우리가 아까 提起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그걸 가지고.

南(宋漢虎) : 研究를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편리한대로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귀측에서도 軍隊編制대로 서로 편리한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것을 받지 못할 어려움이 없으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北(백남준) : 어느것?

南(宋漢虎) : 議題, 議題……

北(백남준) : 아니, 議題問題야 뭐 그쪽에 가서 더 研究를 하시겠다고 해서 숙제로 남기기로 하지 않았소?

그러니까 이제 議題는 隨員問題까지 차이난다고 우리가 말하던 隨員問題까지는 다 討論됐으니까, 이 나머지 문제를 아까 우리가 제기한 合意書 草案을 하나씩 討論해 내려가자.

南(宋漢虎) : 아,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지금 合意書草案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方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의견이 있는데, 그 중요한 議題問題가 지금 合意가 안되지 않겠어요? 議題問題가 合意가 안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北(백남준) : 그럼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南(宋漢虎) : 그리고 議題問題가 일단 合意가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다섯사람끼리 다 모여가지고서 일일이 合意書, 그쪽에서는 오늘 20 個項이죠?

北(백남준) : 예.

南(宋漢虎) : 우리는 지난번 세 부운영절차가 16개항이었어요. 거기다가 代表團 構成이라든가 會談場所·日時하게 되면 20개 이상이 되는데, 그런걸 가지고서 또 여기에 다섯사람씩 모여서 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그때는 合意書文案을 조정하는 문제는 代表 한사람씩 내가지고, 그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實務적으로 協議해서 作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백남준) : 그래서 차이나는 것들은 오늘까지 討論했으니깐, 그러니까 오늘 會談名稱은 北南高位級會談, 그쪽으로서는 南北高位級會談으로 合意를 보았습니다.

議程問題와 관련해서는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하고 그 다음에 多方面的인 協力·交流問題하고, 그걸 다 議題化한다는데 合意를 보았습니다.

다만 그 文案整理에서 政治·軍事問題를 앞에 놓느냐, 交流 協力問題를 뒤에 놓느냐 하는 문제는 宿題로 남기자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研究를 해 보세요. 研究를 하고 조금전에 우리 남북관계에서 文案들을 정리해서…….

南(宋漢虎) : 우리쪽에서 각기 편리한대로 표기하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北(백남준) : 아니, 글썬 각기 편리한다는게 글썬, 아니 議程하나 하는것도 세상에다 대고 창피스럽게 그거 뭐 그쪽에 따로 우리쪽에 따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研究를 해 봅시다. 이걸 좌우간 宿題로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軍代表問題, 그것은 總參謀長級, 그쪽으로는 參謀總長級을 참가시키는 條件에서 雙方이 편리한대로 軍實權者 대표구성을 한다. 合意를 봤습니다.

南(宋漢虎):예.

南(金保鉉):그거 하나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셋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北(백남준):아니, 그거는 雙方이 편리하다고 해서.

南(金保鉉):아니, 그거는 다른 대표단과의 衡平問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체육…….

北(백남준):아니,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기서 論議하지 말자. 왜 論議하지 말자 하면 雙方 편리한대로 해놓고 또 셋이상 안되니 하는건 限定하자는건데.

南(金保鉉):級은 合意를 보았는데 숫자도 따져 보아야겠어요.

南(宋漢虎):2명 주장하다가 3명 할 수 없을거고.

北(백남준):좌우간 내생각에는 그거 그쪽에서 두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한대로 합시다.

南(朴鍾權):2명이나 3명이나 하는 것은 이미 백선생께서 이미 基本的으로 2명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2명선에서의 方向設定이 돼있다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軍事代表님께, 김대표한테 질문인데, 實權者 2명 그러면 이제 軍令權을 갖고 있는 人民軍總參謀本部 또 軍政權이 있는 人民武力部에서 하나씩 나올 그런 생각이신지? 또는 總參謀長級했는데 그밑에 또 부장급이 여럿 있습니까?

北(백남준):그밑에겐 급이 없으니까? 여기서선 결정안했으니까.



北(김영철) : 軍隊는 副部長級이라는게 없으니까.

北(백남준) : 實權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軍隊에서 實權을 가진 사람이면 되니까, 우리 하나만은 명백히 한것은 總參謀長級, 軍參謀總長級이란 것은 명백히 했다. 그다음에 軍隊를 참가시키는 것은 실권자가 참가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2명이나 1명이나 하는거는 호상 편리한대로 하기로 했다.

그건 뭐 셋도 될 수 있고 다섯도 될 수 있고 일곱이 다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상관할게 없고 그쪽에서는 뭐인가 하면.

南(宋漢虎) : 또 이야기가 달라 (일동웃음)

北(백남준) :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한하지 말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생각에는 거저 그쪽에서 들이 나오면 그저 제일 이상적이겠다. 그렇게만 나는 그저 꼬리달아 둡니다. 그렇게 하고 隨員問題는 雙方이 33명으로 낙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問題들에 대한거는 議題文案整理 問題가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숙제로 남겼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대체로 공통돼요. 큰 問題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 問題에 대해서는 宋선생님 意見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것 또 우리 다시 앉아서 그렇게 하겠소? 다음번에 나왔을때 議程問題를 이렇게 合意를 하고, 그 다음에는 봐가지고서 代表들 몇이서 앉아서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文案整理하면 될테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나올때 宋선생님도 合意書草案 하나 가지고 나오십시오.

南(宋漢虎) : 뭐 合意書는 저희들도 準備는 하겠습니다.

北(백남준) : 가지고 나오시고, 오늘 會談은 이만하고.

南(宋漢虎) : 예. 좋습니다.

北(백남준) : 그런데, 다음 會談 날짜는, 다 合意가 됐으니까 우리가 먼저 부를 차례지? 근데 내가 여기다 먼저 서론을 좀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1차, 2차, 3차, 4차, 5차會談까지는 그저 宋선생이 다 이겼습니다.

南(宋漢虎) : 뭐, 이기긴 뭐 이겨요? 여기가 뭐 勝敗가 있습니까?

北(백남준) :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제 意見을 좀 尊重해 주시요. 존중해 주는데, 내년연초로 말하면 또 年初기 때문에, 정월초는 아마 또 雙方이 다 이제 좀 분주할 것 아닙니까? 그렇하구, 正月末로 보면 또 國會會談도 豫見되는 것 있고, 또 여러가지 提起되는 課業도 있고, 그래서 제일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 정월중순께가 좋겠다. 이제 뭐 크게 오래 걸릴 시간이 없으니까 정월 18일날, 그게 무슨 曜日이더라, 그날로 합시다.

南(宋漢虎) : 우리는 사실 잡아오기는 그때 1월달에 가면은 사실상 業務가 다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보고할 것도 있고, 처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2월 중순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北(백남준) : 2월중순?

南(宋漢虎) : 예, 2월중순, 그래서 2월 14일.

北(백남준) : 그런데 宋선생님, 우리가 본래 1차, 2차…….

南(宋漢虎) : 아, 그리고 뭐냐하면은 1월하순에는 舊正도 되구요, 연휴가 되고 하니까.

北(백남준) : 그걸 다 豫見을 했습니다. 다 加算을 했고, 그래서 이거 1次會談, 2次會談은 2次에서 3次會談까지는 20일 주기로 나갔는데, 그다음엔 宋선생님 또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면 35~40일 주기로 나

가다가 또 두달 週期로 나가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말구요, 내가 서 두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되풀이 하진 않겠습니다. 되풀이 하진 않겠는데 그쪽만 事情이 있는게 아니라 우리도 事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월 18일날로 합시다.

南(宋漢虎) : 우리가 좀 우리가 여러가지로 바쁜일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하시죠.

北(백남준) : 그런걸 내시자면 나도 또 그런 日誌를 내가 좀 얘기를 하잡니까?

南(宋漢虎) : 뭐, 바쁘시죠(웃음)

北(최우진) : 90년대 맞이하는 첫해인데 정월달에 會談하지 못하고, 아 2월로 그것도 중순을 넘기구,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떻소? 오늘 다 合意됐으면 實務代表接觸으로 넘겼으면 좋겠는데, 合意도 못봤는데…….

南(宋漢虎) : 그러시다면 우리가 며칠쯤 내가 調整을 해보죠. 2월 8일 어때요? 2월 8일이, 2월 8일 하시죠!

北(백남준) : 아니, 아니.

南(宋漢虎) : 우리로서는 여러가지 日程을 보아서 더 이상 融通性이 없어요. 融通性이 없으니까.

北(김영철) : 날짜問題를 정하는데 宋漢虎 首席代表先生께 내가 意見이 있습니다.

南(宋漢虎) : 뭘 또 意見 있습니까?

北(김영철) : 뭐 있는가, 날짜도 빨리빨리 해서 우리는 겨레한테 기쁨을 준다고 基調發言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그렇게 늦잡습니까? 모든 會談이 같은 값이면 18일로 당기지 무슨 事情이라는게 뭐예요, 글썄.

南(宋漢虎) : 우리측 事情이 좀 있으니까.

北(백남준) : 아니, 우리측 事情이야 다섯번 다 宋선생님 우리측 事情을 얘기를 했지요? 우리측 事情만 보고 우리측 事情을 또 안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다음 會談은 宋선생하고 나하고 갈라질 것 같은데 한번만 날짜문제래두 내가 지금 부르는데 同意하십시오.

南(宋漢虎) : 서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折衷案으로서…….

北(백남준) : 그럼 어쨌던 정월중으로 잡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날짜를 가지구선 20日週期로 하다가 35日週期로 하고 이젠 2달週期로 나가는데.

北(최우진) : 國會會談보다 앞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北(백남준) : 좌우간 정월중에 잡으세요.

南(宋漢虎) : 2월로 그리해요!

北(백남준) : 그러지 맙시다. 이거 뭐.

南(宋漢虎) : 26, 27, 28일이 구정이에요.

北(백남준) : 아 그러면 스무날, 토요일날 합시다.

南(宋漢虎) : 아니, 그전까지는 내가 안된다니까?

北(백남준) : 아 글썄, 내가 안되는걸 가지고서 雙方會談에서 자꾸 내主張만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

南(宋漢虎) : 아, 나 이거 참!

北(백남준) : 남이 보는데, 그것도 2달씩 뒷 때문에.

나는 일이 지금 가뜩 밀려서 야단났다고요.

北(최우진) : 우리 빨리 한번 더 모여왔고, 그 다음에 實務代表接觸으로 미루지 뭐.

南(宋漢虎) : 그럼 1월 31일 마지막, 할 수 없지 뭐.

北(백남준) : 무슨 요일이예요?

南(宋漢虎) : 수요일이예요.

北(백남준) : 예 예, 합시다.

南(宋漢虎) : 구정이 앞에 끼어 가지고 짹짹하네, 큰일났네.

北(백남준) : 아니 근데 내만 자꾸 생각하구, 구정이면 나도 설 쇠야지  
뭐, 宋선생님만 쇠겠소?

南(宋漢虎) : 자, 이것으로 끝내지요. 그럼 새해에 만납시다.

北(백남준) : 수고들 많았소.

南(宋漢虎) : 수고 많았습니다.

< 끝 >



〈附 錄〉

---

---

代 表 團 記 者 會 見

---

---





## 1. 우리側 代表團 記者會見

\*日時：1989.12.20(水), 12:39-12:53

\*場所：板門店 우리側 地域「平和의 집」

\*發表 및 答辯：宋漢虎 首席代表

### <記者會見文>

오늘 비디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會談名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그동안 主張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南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南北總理會談」으로 하자고 이렇게 主張을 했고, 북한측은 政治軍事問題를 다루는 회담이기 때문에 「高位級政治軍事會談」으로 해야된다고 主張을 해서 일단 여러가지 相互間에 意見交換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측이 「南北高位級會談」으로 하자고 修正提議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동안 우리의 南北對話에서 논의되었던 會談名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북한측이 80년도에 南北總理들간의 對話를 위한 實務代表接觸이 있었을 때 그 회담명칭을 南北總理接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담에서도 제가 주장한 바와 같이 87년도에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하자고 할때 우리가 總理가 수석대표가 되는 南北總理會談으로 하자고 하니까 북한측이 거기에 동의를 해와 가지고 南北總理會談이라고 이름을 부를것에 同意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문제를 다시 제기를 하면서 80년도에도 南北總理接觸이라고 하자고 하였고 또 87년도에도 南北總理會談이라고 하자고 그랬는데 왜 南北關係 狀況이 별다른 變化가 없는데 왜 다른 이름을 고집하느냐, 무슨사정이라도 있느냐 이런식으로 제가 反問을 했고, 그랬더니

나름대로 妥協案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측 말을 빌린다면 「北南高位級會談」으로 하자고 이렇게 修正提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고 長次官級이 대표가 되고 거기에는 軍 參謀總長級 1명을 包含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合意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단 構成문제와 관련해가지고서 軍代表를 2명으로 하느냐, 1명으로 하느냐, 우리측은 1명으로 충분하다고 했고, 북한측은 軍事問題가 가장 중요하고 또 비중이 큰 것이기 때문에 軍代表를 2명으로 해야 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軍代表 2명으로서 軍實權者가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저희들은 이 이야기 하기를 軍實權者가 애매하니까 參謀總長級이면 參謀總長級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런데 북한측이 오늘 基調發言文에서 북한측으로 말하면 總參謀長級, 1명을 포함한 軍實權者 2명으로서 代表團을 구성하자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서로 意見을 나누다가 북한측이 參謀總長級 1명이 포함되는 조건하에서 각기 편리한대로 하자고 이렇게 合意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해서 合意를 보았고 隨行員 數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 저희가 30명 내외로 하자고 그랬고 오늘도 30명내외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北韓側은 30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역시 북한측이 그러면 33명으로 하는것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同意를 해서 隨行員 문제는 이제 다 合意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代表團 構成問題에 있어서는 意見一致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議題 問題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지난번 4차회담때에 북한측이 그동

안 主張해 오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문제를 議題에다 採擇하는 것을 저희가 修正提案을 해가지고 그대신 交流協力도 같이 논의한다.

그래서 다각적인 交流協力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 이렇게 修正提案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측은 基調發言文에서는 계속해서 다각적인 交流協力問題를 배제하고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만을 議題로 採擇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그러한 주장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야기 했지만 북한측은 그동안에 交流協力問題가 중요하다고 여러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 그것이 南北間에 信賴를 回復하고 統一을 促進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強調를 했고 그랬더니 북한측이 議題問題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것과는 다르지 마는 일단 多角的인 交流協力問題를 議題에 포함시켜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와 함께 並行 表記하자는데는 同意를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북한측은 南北사이에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하며 다방면적인 協力과 交流를 실시할데 대하여 이렇게 修正提案을 하고 있고 우리는 南北間에 다각적인 交流協力과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저희들은 다각적인 交流協力問題를 의제의 앞부분에 표기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측은 거기에 대해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를 앞부분에 表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서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 經驗으로 보아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말하고 論理를 펴다

면 자기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고 자기 主張의 正當性을 필수있고 그러다 보면 도저히 의견의 接近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折衷案을 냈냐하면 남북이 각기 편리한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南北間의 多角的인 交流協力과 政治軍事的 對決 狀態 解消問題」, 북한측은 「南北사이에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며 多方面的인 協力과 交流를 實施할데 대하여」이렇게 提案을 했는데, 북한측에서 이것을 研究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完全 合意를 보지 못하고 다음 會談에서 이 문제가 論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기자님들께서 아셔야할 것은 사실상 南北間에 관계를 개선하고 平和統一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交流協力問題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면에서는 이것이 軍事的인 문제보다도 더 앞서서 해결되어야 할 선차적인 必須課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남북간에 있어서 여러가지 南北關係改善을 가로막는 중요한 障礙要素가 무어나, 이것은 南北間의 不信과 敵對感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려면은 政治·經濟·社會·文化 이런 여러가지 분야에서 다각적인 交流協력이 實施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축적이 되어야 그때 信賴가 造成이 되고 또 對決意識도 緩和되고 그렇게 될때 비로소 政治的인 그리고 軍事的인 對決狀態도 緩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측의 논리는 무엇이나 하면은 政治軍事的 對決狀態가 해소가 되면은 기타 다른 문제는 다 解決될 수 있다. 民族의 和解라든가 團합도 될 수 있고, 統一方案이나 平和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促進시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必須的인 解決課題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分斷의 현실을 외면한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交流라든지 혹은 協力を 통한 信賴造成이 없이 그리고 또 對決解消가 없이 한꺼번에 政治的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가 안됩니다. 이것은 아주 常識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交流協力問題가 先次的으로 다루어지고 또 協議・解決되어야 한다 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있는 만큼 우리가 북한측의 主張과 立場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도 중요하게 總理들이 만나는 會談에서 다루어서 協議・解決하자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表明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북한측이 議題問題와 관련해서 修正案을 제기 했을때 각기 편리한대로 서로 표기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마치 북한측이 議題問題에 대해서 큰 양보나 한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 4 차회담때 우리가 북한측에서 그동안 主張해왔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를 우리가 交流協力問題와 함께 討議를 하자 하는 그런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북한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呼應해 나온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 會談날짜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년 1월 31 일날 統一閣에서 가지기로 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質問・答辯 >

質問： 이제 나머지는 구체적인 節次問題만 남았는데 다음에도 다섯분의 代表들이 다 나오셔서 會談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 하신것 처럼 首席代表간에 만나는 겁니까?

答辯： 이번에 議題問題와 관련해서 意見一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5명의 豫備會談代表들이 다같이 나와가지고 協議를 하고 만일에 議題問題가 妥結이 되면은 그때는 具體的인 합의서 작성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북측 白團長이 合意文案을 提示한 것 가지고 같이 한번 討議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議題問題가 未決로 남아 있으니 議題問題에 대한 完全한 合意를 본 다음에 그때가서는 5명씩의 代表가 굳이 나올 必要가 없다. 각측에서 雙方에서 한사람씩의 실무대표가 나와가지고서 文案 整理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제시를 했더니 북한측에서도 實務 節次 合意書 作成은 그런 方式으로 하는것도 좋겠다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質問： 軍代表는 편의에 따라서 하기로 했는데 저쪽에서는 3명도 할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그쪽에서 3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측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答辯： 그동안의 경위를 쭉 보면은 北韓側은 2명의 軍代表가 參加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는 1명이면 充分하다는 立場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북한측에서 각기 편리한대로 하자고 그랬잖습니까?

그렇다면 3명이 될 수 없는 거지요. 북측은 2명을 하고 우리는

1명으로 하는 方式으로 軍代表 構成을 북한측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質問： 거기에 대해서 明確하게 이야기를 안한것 같던데요.

答辯： 글썽 그것은 그동안의 北韓側이 主張해 왔던 立場이라든가 論理가 있으니까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質問： 오늘 會談은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도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答辯： 오늘 會談名稱과 關係해서 合意를 보았고 代表團 構成問題에 關係해서 合意를 보았습니다. 軍代表構成 그다음에 隨行員 數 問題 그러기 때문에 오늘 會談은 進展이 있었다고 말씀 드릴수 있지요.

質問： 지금까지 북한의 態度로 볼때 오늘 意外的인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저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答辯： 저는 의외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總理들의 만남은 사실 總理會談으로 제일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측이 어떤 理由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反對를 해왔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그 論理가 우리가 主張하는 論理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북한측이 이걸 받아들인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軍事問題가 나름대로 會談을 통해서 協議 될려면 다각적인 交流協力 문제도 議題에서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북한측이 그동안에도 누차 交流協력이 중요하다고 했고 아까도 회담때 이야기 했지만 7·4 共同聲明에서도 合意되었고 북한측이 73년도 6월달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最高當局者가 祖國統一 5大綱領을 내놨

어요, 거기에도 보편은 交流協력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측이 交流協力の 重要性을 否定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總理들의 만남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討議議題에 包含이 되어가지고 協議의 對象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北韓이 당연한것을 오늘 인정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質問： 다음 會談에서 ทัพ스피리트訓練 中止問題를 舉論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答辯： 저는 會談外的인 問題를 舉論한다는 것은 이 豫備會談의 여러가지 성격이라든가 사명에 비추어 보아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잘못된 會談態度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質問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 2. 北側 代表團 記者會見

\* 日時 : 1989. 12. 20 (水), 12 : 20 ~ 12 : 35

\* 場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 「自由의 집」 계단앞

\* 發表 및 答辯 : 백 남 준 단장

### < 記者會見文 >

오늘 5次 豫備會談에서는 전번 4次까지 雙方사이에 見解를 좁히지 못하고 있던 問題들을 놓고 協議를 했습니다.

結論부터 말씀드리다면 오늘 會談에서 적지 않은 問題에 合意를 보았습니다. 合意를 봤는데 좀 어려운 속에서 合意를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雙方의 見解가 4次까지 계속 맞서고 오늘 첫 發言을 통해서 역시 雙方이 각기 實務節次問題에서 主張이 맞서고 이래서 平行線을 긋지 않으면 안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時間과 精力을 허비하면서 무한정 本會談의 開催를 遲滯시켜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그런 誠意와 積極的인 努力에 의해서 오늘 남아있는 問題들을 거의 合意를 보았습니다.

이제 結論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討議過程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씩 問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會談 名稱問題입니다. 會談名稱問題에서 우리는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이라 하자고 오늘도 우리는 본래의 主張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이 會談名稱이 북과 남 사이에 高位級이 마주 앉아서 政治軍事問題를 討論하는 會談이다. 이 會談名稱은 완벽하고 나무랄데가 없는 그런 會談名稱으로서의 최선의 것이고 가장 合理的이고 正當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남쪽에서는 오늘도 「北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總理會談」으로 할 것을提起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折衷案으로서 會談名稱에서 政治軍事問題를 反映할 수 없다고 하는 南側의 見解에서 對立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쪽에서 當局者會談이다, 當局者라는 것은 단순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會談形式이다 이말입니다. 그래, 이거 우리 역시 말하자면 부정을 했는데, 그렇지만 계속 남측에서 1次부터 主張해 오던 「北南高位當局者會談」 혹은 「總理會談」은 이걸 무슨 問題를 討議하자는 會談인지 反映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折衷案으로서 雙方이 의견상 차이있는 것을 捨象해 버리고 雙方이 공통하게 反映하자고 한 問題만 찾아서 「北南高位級會談」으로 合意를 봤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우리의 讓步였습니다. 또 그리고 本會談 탄생을 빨리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誠意있는 表現이었습니다.

다음은 會談 議程問題입니다. 會談議程問題에 있어서는 우리가 「북과 남 사이의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 데 대하여」로 이렇게提起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 豫備會談을 마련하게 된 그런 경위를 놓고 보든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南北關係를 改善하는데서 그것이 차지하는 中核的인 위치를 보든지 이 議程이 담고 있는 그 內容으로 보든지 우리 議題는 나무랄데 없는 議題입니다.

그런데 南側에서는 전번 4次때에 北南간 다각적인 交流・協力問題와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를 이렇게 제기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남측은 똑같은 主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 이

議題問題에 있어서도 도저히 妥協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또 折衷案을 내놓았습니다.

원래 交流協力問題는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안에 포용되어 있는 問題입니다.

이건 7.4 南北共同聲明 이후 또 우리가 호상 주고 받은 이런 便紙들과 또 이번 會談을 마칠 때에 雙方總理들의 오고 간 편지들에서도 이것이 다 호상 確認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계속 이것을 議程化하자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折衷案으로서 「北과 南 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며 多方面的인 協力과 交流를 實現할 데 대하여」로 折衷案을 提起했습니다.

그래서 남측은 이 議程에 交流協力問題를 上程시키겠끔 하는데 대해서는 환영을 했고 거기에 同意를 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難關이 造成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난관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 政治軍事問題하고 協力交流問題는 비중으로 볼 때도 政治軍事的 對決이 있음으로 해서 交流協力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政治軍事問題를 議程 定立에서 앞에 놓는 것이 순리입니다. 또 그리고 南北共同聲明에서도 政治軍事的 對決狀態問題를 앞에 놓고 다음 밑에 條項에 내려와서 交流協力問題를 놓았습니다.

또 이번 豫備會談에서 南側은 6個項 議題를 내왔는데 그 6個項 가운데서 3번째 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첫번째 項, 두번째 項은 政治的 對決問題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측도 역시 交流協力問題는 政治軍事的 對決問題에 버금해가는 다음가는 問題라는 것에 認識을 하고 있고 용인하고 있는 問題입니다.

그러면서도 交流協力問題를 앞에 놓자 이런 것을 主張해 나섰습니다. 그  
래 이것은 우리가 政治・軍事問題를 앞에 놓는 것이 順理이고 交流協力問  
題는 政治軍事問題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의제에 올려 놓은 것만 해  
도 다행스러운 것인데 이걸 자꾸 앞에다 놓자는 건 부당하다. 또 7.4 南  
北共同聲明이나 北南關係에 있어서 의정을 定立할 때는 慣例로도 되어 있  
다 이겁니다.

政治軍事問題를 앞에 놓고 交流協力問題를 그 다음에 놓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고 文案 定立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妥當한데 자꾸 이걸 앞에 놓  
자는 건 부당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南側에서는 그러면 文案定立問題는 雙  
方이 편리한대로 하자 이렇게 意見을 提起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무슨 소린고 하면 우리는 「北과 南 사이의 政治・軍事的 對  
決狀態를 解消하며 다방면적인 協力과 交流를 실현할데 대하여」로 하고  
南側은 「北南간 多角的인 交流協力 實施와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  
이렇게 제 나름으로 자기쪽에 편리하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거 議題  
問題를 定立하는 데서 議題에 올려놓 자격도 없는 것을 별개 시켜서 우  
리가 折衷案 誠意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 順理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것이  
對決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南北關係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렇게 문안을 定立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南側에서 나가서  
研究를 하고 숙제로 남기겠다. 研究를 하고 다음번에 나와서 우리가 제기  
한 議程에 同意할 것을 促求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代表團 가운데 軍實權者를 參加시키는 問題입니다. 우리  
는 이 軍事問題가 世界的으로도 軍縮이 趨勢입니다. 世界的으로 보면은 이  
런 紛爭問題가 허다하게 많은 데 지금 軍縮問題가 이런 趨勢이고 그렇게

軍事問題는 重大하다. 우리 南北關係를 볼 때도 역시 軍事的 對決이 차지하는 지위가 대단히 重要하고 이 問題는 매우 幅이 넓은 問題이고 더구나 우리 北南關係에서 軍事問題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特性이 있다. 무슨 特性이 있느냐, 매우 어렵고 복잡한 問題다. 왜 우리 북과 남의 軍隊만의 問題가 아니고 남조선에는 美軍이 와있는 條件에서 이 問題를 解決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軍事問題보다 더 어려운 問題이다.

그러기 때문에 代表團 7名 가운데에 軍實權者 2名을 參加시키겠다. 그러니까 南側에서는 그걸 研究할 時間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問題도 研究할 時間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스쳐 보낼 수 없고 또 우리가 折衷案을 내놓았습니다. 折衷案은 다음과 같이 내놓았습니다.

總參謀長級, 南側으로 보면은 參謀總長級입니다. 總參謀長級을 參加시키는 條件에서 軍實權者 數는 雙方이 편리한대로 構成한다. 이렇게 提案을 했습니다. 그래서 南側이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代表團 7名 가운데서 軍實權者는 總參謀長級을 參加시키는 條件에서 雙方이 편리한대로 軍實權者를 構成한다, 이렇게 合意를 봤습니다.

다음 이제 남아 있는 問題는 隨員 數 問題입니다. 隨員 數를 우리는 종전에 20名으로 하면 되겠다고 하고 南側은 40名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4차 회담때 그러면 이것도 빨리 妥結하기 위해서 30名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南側에서는 30名 內外로 하자 이걸 좀 막연한 提案이었습니다. 30名 內外야 30名이 못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좀 넘을 수도 있고 이런 막연한 것을 내놨기 때문에 이번엔 우리는 뭐인가, 南側이 要求한 대로 30名 內外로 하자. 그런데 同數로 하자, 몇 명이든 좋겠는가, 그래서 35名 하겠다고 南側이 提起했는데 35

명이야 수학에서 보면 四捨五入하면 40이 아닙니까. 그래서 33명으로 하기로 이렇게 우리들의 提議에 의해서 33名으로 隨員 數를 낙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實務節次問題로 提起된 것들은 오늘 우리가 合意書를 내놓았는데 이 合意書에 의해서 討論해 내려가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갖고 南側에서 다음번에 合意書를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合意書 文案 定立하는 나머지 것들은 거의 같으니까 문안정리를 하는 것은 實務 代表들이 接觸을 한다든가 이런 말하자면 組織을 해가지고 하기로 하고 오늘 會談은 결속을 했습니다.

오늘 會談을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側이 會談에서 사실 積極性과 誠意를 다함으로 해서 이런 전진이 이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會談 날짜는 우리가 정월 18일날 하자, 정초는 일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또 정월말에는 우리 조선사람의 설도 있잖습니까.

음력설도 있고, 또 國會會談도 예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월 18일날 하자고 提案했는데 南側에서는 2월 14일에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問題와 關聯해서 이거 會談의 1次, 2次, 3次까지는 20日 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40일 주기로 넘어왔거든요. 그래 2달 주기로 또 하겠는가. 정월달로 낙착하자, 그래서 정월 31일날에 6次會談을 하기로 合意를 했습니다.

以上입니다.

< 質問・答辯 >

質問：남아있는 問題가 있습니까?

答辯：남아있는 問題는 큰 것이 없습니다. 議題, 文章整理만 남아 있습니다.

質問：合意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答辯：合意書는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간다. 南北往來를 하는 데는 어떻게 한다, 이런 實務的인 것입니다.

質問：軍事代表가 3~4名도 될 수 있습니까?

答辯：그건 雙方이 편리한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總理들이 자기 결심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